

NYPI YOUTH REPORT

청소년리포트

vol.07 _ 04 / 2010

ISSN 2005-9183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테마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NYPI

미래세대리포트 청소년 핵심역량의 개념 |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 박사)

조사통계리포트 2009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 김기현

정책제언리포트 청소년기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맹영임

해외동향리포트 뉴질랜드의 핵심역량중심 교육 체계 | 장근영

말레이시아 청소년정책소개 | Haryanti Hassan (University of Malay)

청소년리포터 벤쿠버 영웅들과의 인터뷰

칼럼 일본의 핵심역량기반 교육 | 김기현

발간물 소개 NYPI발간물 / 자료실 신착 도서

NYPI NEWS

YOUTH

REPORT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NYPI YOUTH REPORT

vol.7 2010. 04

발행일 | 2010.04.30

발행인 | 이명숙

편집인 | 이창호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 2188-8860 팩스 | 2188-8869

디자인 | 김성희 www.kimsunghie.com

인 쇄 | 엘에스컴

홈페이지 | www.nypi.re.kr



- 04 |  미래세대 리포트 청소년 핵심역량의 개념_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 박사)
- 14 |  조사통계 리포트 2009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_ 김기현
- 24 |  정책제언 리포트 청소년기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_ 맹영임
- 29 |  해외동향 리포트 30 뉴질랜드의 핵심역량중심 교육 체계_ 장근영
35 말레이시아 청소년정책 소개_ Haryanti Hassan (University of Malay)
- 44 |  청소년 리포터 밴쿠버 영웅들과의 인터뷰
- 48 |  칼럼 일본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_ 김기현
- 50 |  발간물 소개
- 60 |  NYPI NEWS

청소년

핵심역량의 개념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 박사)

1. 배경

한국은 대내외적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지식과 기술을 지닌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PISA 결과, 한국이 학업성취도에서는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태도 즉, 학업에 대한 자아효능감, 흥미, 내적 및 외적 동기 등에서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력의 지속적인 유지, 직업능력으로의 전이가능성 증대, 능력의 깊이나 유연성을 위해서는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나 자율성을 강조하고, 진로를 스스로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적 영역을 포함한 생애능력개발 교육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제1차 NHRD 기본계획에 이은 제2차 NHRD 기본계획, 생애초기 기본 학습능력 지원계획(국가인적자원위원회, 2007) 등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생애학습역량의 필요성을 중요 정책 아젠다로 제안한 바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신정부의 실용적 정책 기조(한나라당, 2007) 역시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 까지 생애단계별 능력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핵심역량에 관한 논의는 영국, 독일, 스위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핀란드 및 최근 일본에 이르기까지 국가 수준에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역량육성에 관한 정책 및 생애 학습 단계별 교육과정과의 연계 선상에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OECD, EC, IEA, IL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발전되고 검증되어온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에서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인식에서 1990년대부터 ‘지식사회의 학습’, ‘뇌 과학과 교육’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PISA나 성인능력측정조사(IALS, ALL)도 추진되었다(다츠다 요시히로, 2007).

특히, PISA의 조사결과가 한국에서는 학업성취도에 관한(엄밀히 말하면 학업성취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에 관한) 국제비교에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그 연구의 본래 취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학습태도, 동기, 환경 등 교육과 관련된 내적, 외적 자산에 대한 국가 간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조사결과가 나타내고 있는 사실은 인생에 있어 성공이 지식이나 기능뿐 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개념인 역량(competence)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OECD는 각국의 교육정책 검토를 통해서 생애를 걸쳐 핵심이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핵심역량(key competency)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프로젝트는 1999년부터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핵심역량이 세계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현장에서 중시되는 요소가 된 이유는 핵심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으로서 20세기 후반 이후의 세계가 지식 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로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 경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핵심능력의 중요성도 이해할 수 없다. 현대 사회를 지식 경제 사회로서 파악한 Drucker(2007)는 지식 경제를 이끌어 갈 지식 노동자는 지식과 기능을 별개의 것으로 배우지 않고 통합된 존재로서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능력’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식을 지식으로서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나 도구와 결부시켜 여러 가지 목적에 맞춰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니고, 상황이나 영역에 맞는 지식, 기능과 도구를 익히고 사용하는 지적 기술이 지식 기반 사회의 노동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전개되는 지식관리체계(knowledge management system)에서는 전문가가 지닌 암묵지(暗黙知)를 추출하여 형식지(形式知)로써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확산이 이루어진다. DeSeCo 프로젝트는 OECD 가맹국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능력관(能力觀)의 공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따라서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공유화를 도모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이런 까닭에 종래의 능력관과는 차별된다.

학교교육이나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핵심역량 정책을 OECD나 EC가 중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개념이 종래의 능력 개념보다 넓은 개념임과 동시에 지식 사회의 특징에 적합한 직업 능력이나 고용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학교교육 단계에서 기본적인 핵심역량을 익히면, 그것은 개인 스스로가 발달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평생학습의 기초적 능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C(2006)는 모든 사람들이 핵심역량을 습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 인생을 통한 자기 충족(Self-fulfillment)과 발달이다. 핵심역량은 개인적 관심이나 동기 부여에서 시작하여 평생학습을 계속하려는 마음을 지니도록 하고 인생의 개인적 목표가 실현 가능하도록 한다. 두 번째, 사회 참여기회(social inclusion)이다. 누구나 사회 속의 활동적인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핵심역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이다.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역량을 익히고자 하는 동기는 외발(外發)적인 것이 아닌 내발(內發)적인 것으로 자기실현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핵심역량에서 역량의 의미는 종래의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차이를 가진다. 즉, 이전의 '뭔가 특정한 것을 할 수 있다' 는 의미에서의 좁은 능력의 개념이 아니라, 관심이나 가치, 규범과 같은 잠재적인 동기 부여의 요소에서 지식과 기능, 감정과 태도, 행위와 행동과 같은 표면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넓은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 개념으로 정의된다. 능력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조직이나 직장의 직능에 주로 활용되었던 컴피턴시 개념을 사회생활 장면에서 적용하고 국가 수준에서 생애학습단계별 교육을 혁신하는 방법으로서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OECD DeSeCo의 핵심역량 개념을 가장 충실히 국가교육과정에 도입함으로써 교육혁신을 꾀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이미 2006년 교육개정법(Education Amendment Act)을 통해 OECD DeSeCo가 제안한 핵심역량 개념을 기초로 유아교육에서 성인교육까지 평생학습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2007-2010년을 목표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 뉴질랜드 교육과정은 DeSeCo의 세 가지 핵심역량(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역량,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역량, 이질적인 집단과 교류하는 역량)을 뉴질랜드의 실정에 맞게 재 개념화 하고 있다. 또한 핵심역량과 생애 학습주기별 역량요소들의 관계 역시 발달단계별 특수성이나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여 각 발달 단계별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들이나 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발달과업이나 맥락에 따라서 내용 및 수준에서 연계성과 독특성에 기초하여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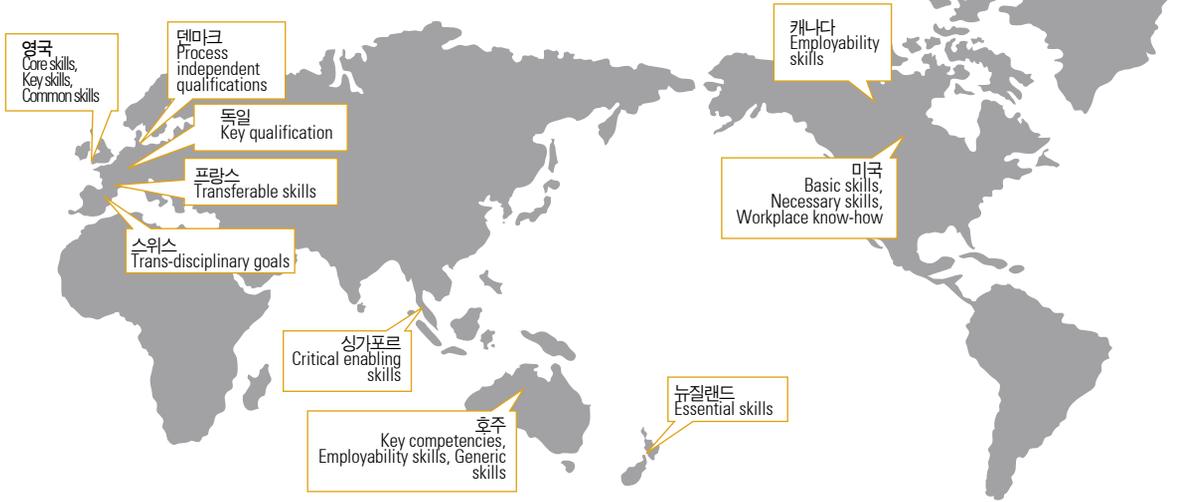
2. 핵심역량의 용어정의 및 범위

성공적인 삶 전체의 맥락에서 컴피턴시라는 용어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기술(life skills: ILO, OECD, UNESCO), 핵심기술(core skills, key skills, common skills: 영국, essential skills: 뉴질랜드), 핵심능력(key competencies: DeSeCo, 호주, 뉴질랜드 등), 일반기술(generic skills: 미국), 핵심자격(key qualification: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원래 컴피턴시라는 말은 White(1950)가 학문적으로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현대적인 컴피턴시 개념을 성취동기 이론의 입장에서 규명한 사람은 McClelland(1973)이다. 그 후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공통적인 특징은 기존의 능력 개념이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 등이 분리되지 않고 총체적인 특성을 가지며, 수행에 근거하거나(performance-based), 학습가능성, 가치지향성, 맥락의존성 등을 강조하고 현장 적용을 중요시한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윤정일 2007).

학자(연도)	정 의	특징적 측면
McClelland (1973,1993)	실제 수행상황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평범한 수행자와 구분되는 우수한 수행자의 특성	수행관련 맥락적 / 가치지향
Klemp(1980) Boyatzis(1982)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	수행관련 맥락적/ 가치지향
Spencer & Spencer(1993)	특정 과제에서 효과적이거나 뛰어난 수행의 이면에 있는 수행자의 내적 특성	총체적 특성 수행관련 맥락적 / 가치지향
Parry(1996)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 기술 등의 내적 특성	총체적 특성 수행관련/맥락적 학습가능/가치지향
Rychen & Salganik(2002)	직무에 있어 중요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 역할이나 책임 등에 영향을 주는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일종의 군으로 기준에 의해 측정가능하고 훈련이나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것	총체적 특성 수행관련/맥락적 학습가능/가치지향
White(1959)	인지적 · 실제적 기술, 지식(암묵지 포함), 동기화, 가치, 태도 및 정서와 효율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타의 사회적 · 행동적인 구성요소들의 연합	총체적 특성 수행관련/맥락적 수행관련/학습가능
Burgoyne (1989)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량으로 길러지고 개발될 수 있음	총체적 특성 수행관련/맥락적
Mirabile (1997)	특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특정직무에서 뛰어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지식, 기술, 역량 등의 특성	총체적 특성 수행관련/맥락적 가치지향
Athey & Orth (1999)	뛰어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및 조직의 지식, 기술, 태도 행동으로 관찰가능한 수행의 형태로 표현된 역량이며, 해당조직이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총체적 특성 수행관련 가치지향
OECD (Rychen & Salganik, 2003)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태도, 감정, 가치, 동기와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뿐 아니라 인지적, 실천적 기술을 가동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역량	총체적 특성 수행관련 맥락적
NCES(2002)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역량, 지식의 집합체	총체적 특성 수행관련/맥락적
한국교육개발원 (2004)	한 개인의 성공적인 수행을 예측하기 위해 일상의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 역량수준으로 생애 발달단계별 특성을 지니며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역량으로서 학습가능성을 전제로 하되 정규학교체제뿐만 아니라 비정규교육체제에서의 학습도 포함.	총체적 특성 수행관련 맥락적 가치지향 학습가능성
IBSTPI(2005)	직업기준에 맞추어 보았을 때 해당직업이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지식, 기술, 태도	총체적 특성 수행관련 맥락적

*자료: 윤정일 외(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 역량의 특성과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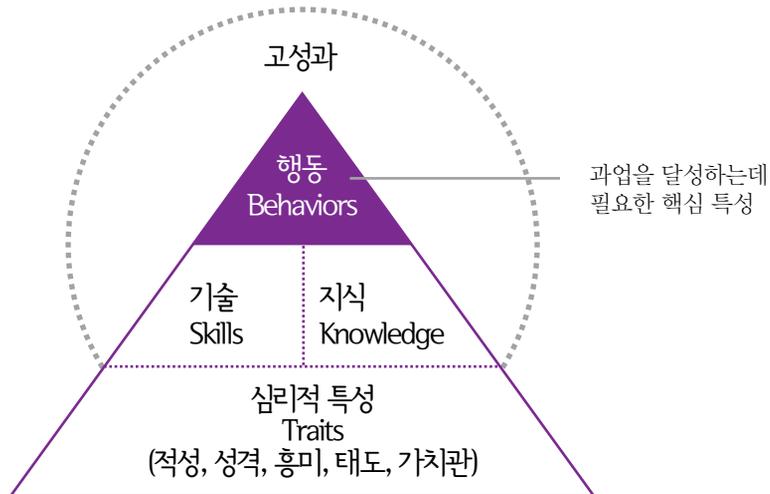
〈표 1〉 국내외 학자/기관별 역량 정의 및 강조점



[그림 1] 각국에서의 생애역량에 해당되는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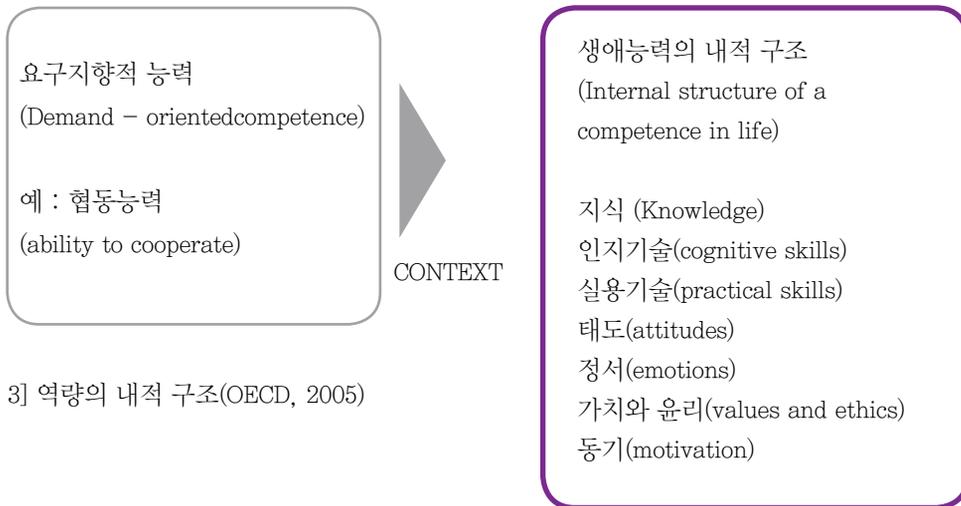
*자료: 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2003), Defining generic skills.

컴피턴시는 기술, 지식, 적성, 개인적 특성,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행동의 복합체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컴피턴시 모델은 타고난 재능의 기반위에 학습이나 노력, 경험에 의해 습득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통합한 피라미드로 표현될 수 있고, 이때 천부적인 특성과 학습된 재능이 표현되어 나타난 구체적인 행동은 피라미드의 정상에 있으므로, 컴피턴시 모델이 현장에 활용되려면 다양한 개인의 컴피턴시를 나타내는 행동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 역량 피라미드(Spencer & Spencer)

OECD(2005)의 DeSeCo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컴피턴시의 내적 구조(internal structure)로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협동능력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의 내적 구조는 지식, 인지기술, 실용기술, 태도, 정서, 가치 및 윤리, 동기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양상은 상황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컴피턴시라는 용어는 기업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직무수행능력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면에서 '역량'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역량'이란 말이 직업장면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고 사회생활장면에 컴피턴시 개념의 확대 적용을 위해 차별적인 용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생애역량'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근 OECD를 비롯한 주요국들에서도 컴피턴시 개념을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것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논의로 확대·발전시켜왔다(Rychen, 2003; 소경희, 2007; 정미라, 2007).



[그림 3] 역량의 내적 구조(OECD, 2005)

3. 핵심역량 개념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진국들이 생애핵심역량 개념을 교육에 도입하는데 이론과 실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두 가지의 프로젝트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하나는 1999년부터 추진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2년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OECD 국가들의 핵심역량 도입에 관한 두 번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이듬해인 2003년까지는 그 결과를 정리한 두 권의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능력으로서의 생애핵심역량을 확인하고 그 평가와 지표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었다(Rychen & Salganik, 2001, 2003).

한편, 다른 하나는 유럽공동체 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주관한 생애핵심역량 지원 정책에 관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0년의 리스본 회의를 통해 국제화와 지식 기반 사회

의 발전 속에서 모든 유럽 시민들이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초 스킬(new basic skill)이 필요하며, 평생학습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새로운 기초 스킬로 IT기능, 외국어, 기술 친화적 문화, 기업이 정신과 사회적 스킬을 유럽 공동의 틀로서 정의해야 한다는 유럽국가들 간의 합의에서 비롯되었다.

리스본 전략은 이후 2005년의 EC 회의에서도 재확인되어, ‘평생학습을 위한 핵심역량 육성’에 교육과 기능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EC 각국의 교육정책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06). 생애핵심역량에 관한 OECD의 DeSeCo 프로젝트가 제목 그대로 이론적, 개념적 기초라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EC에 의해 제안된 ‘평생학습을 위한 핵심역량 육성’은 유럽 각국의 실제적인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는 실천적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생애역량에 대한 각국의 논의를 검토하였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사회학자, 측정전문가, 철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통계학자, 교육학자, 정책입안자, 기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 가지 영역의 9가지로 생애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표 2〉 DeSeCo 프로젝트에서 추출한 생애역량

구분영역	중요한 이유	생애역량
1.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변화에 적응 · 개인적 목적에 맞게 변화 유도 ·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 	1-a: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1-b: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1-c: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2.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하게 대응하기 위함 · 공감의 중요성 ·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2-a: 타인과 관계를 잘 맺음 2-b: 협력할 수 있는 능력 2-c: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
3.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감을 파악하고 목표를 수립 · 권리를 찾고 의무를 수행 · 환경과 그것의 작동 원리를 이해 	3-a: 큰 맥락 안에서 행동 3-b: 생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김 3-c: 권리, 이익, 한계와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자료: OECD(2005a).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세 개의 생애핵심역량은 개인적 형성을 위한 능력(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자기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형성(인간관계)을 위한 능력(이질적인 집단과 상호 작용하기), 그리고 이 두 개의 형성을 지탱하는 도구가 되는 역량(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 역량의 중심에 반성성의 개념(reflectiveness: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생에 대한 사려 깊은 접근)이 자리하고 있다.

본래 생애핵심역량은 복잡한 상황과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핵심이 되는 개념에 인생에 대한 깊은 사려, 생각하는 힘(반성성)이 위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는 힘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도구를 활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생애핵심역량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DeSeCo 연구결과는 능력의 개념이 직무수행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장면을 넘어서 일상생활

혹은 복잡한 사회적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생애핵심역량으로 그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지적·실제적 기술, 지식, 동기, 가치, 태도 및 정서와 효율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타의 사회적·행동적인 구성요소들의 연합’으로 능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작업 장면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능력의 개념을 일상생활 및 사회적 장면으로 확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DeSeCo의 목적은 생애핵심역량에 관한 광범위하며 포괄적인 증거 틀을 구축하는데 있었지만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각국이 상황에 맞는 개개의 핵심역량의 개발에 DeSeCo의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네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Rychen, 2002).

첫 번째, 핵심역량은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인 행복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모든 사람들의 핵심역량에 초점을 맞춰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핵심역량은 전문 영역의 지식이나 읽기, 쓰기, 계산과 같은 기초적 기술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필요에 대처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누구나 그 기초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기초적인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핵심역량의 습득과 유지를 개인적인 노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람직한 사회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기초 능력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인 사회발전으로 이어지며 생활 조건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도 인식 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생애핵심역량은 공식적인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교육환경에서의 행동이나 상호작용 속에서도 발달한다. 학교가 학습과 교육의 기회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가정이나 직장, 대중매체,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기관 등의 제도나 조직, 시설 또한 각각에 필요한 역량과 기본적인 자질을 육성할 책임이 있다.

네 번째가 이를 위한 교육학적 전략과 방법이다. 각 개인의 핵심 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학습이나 교육적 접근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요구 되는가? 다양한 학습 전략이 다양한 학습 성과를 낳는다면, 학습의 자율성이나 동기 부여를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란 어떠한 것인가?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생애발달단계의 다양한 집단을 위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나 방법 및 이와 관련된 교육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DeSeCo 이후 EC에서는 평생학습 증거의 틀로서의 핵심역량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DeSeCo 참가국들과 EC 가맹국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교육체계에 핵심역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스코틀랜드 자격 연구 조직의 보고서에는 스코틀랜드의 필수 스킬을 몇몇 나라의 핵심 스킬이나 핵심역량에 관련된 커리큘럼과 비교 분석하였다(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 2003). 그리고 Eurydice의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잉글랜드, 뉴질랜드를 비교한 결과, 자율적 능력(Personal Mastery, Self Direction)을 중심으로 학습과 사고 및 기업가 정신과 혁신, 창의력, 직업 준비, 대인관계 등을 핵심역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2002년 시점에서는 핵심역량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명확한 틀을 만든 나라(영국, 스코틀랜드, 포르투갈, 벨기에의 플레타스 지방), 역량 개발을 검토 중인 나라(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북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아직 커리큘럼에 충분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나라(그리스,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2006년까지의 경과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2005년에 필리옹법(Fillon law of 2005)이 제정되어 역량에 관한 공통 기초과목(scole commun de connaissance et de competences)이 도입되었고 핀란드에서는

ePortfolio를 사용한 커리큘럼 개선이 진행되는 등, 각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2007년에 직업과 교육의 통합성을 높이고 전국 직업 자격 시스템(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과의 연동을 기초로 한 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2006년 12월에 Leitch 보고서 ‘글로벌 경제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국제 수준의 스킬’을 완성하고 2020년까지 영국 국민들의 스킬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Leitch경은 보고서 서문에서 19세기가 자연자원에 의존한 시기라면, 21세기에 있어서 우리들의 자원은 인간이다. 그 잠재적 가능성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거대하다. 스킬이야말로 그 가능성의 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예는 고도의 생산성, 부와 사회 정의의 창조에 있을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스킬 향상 이외에 영국이 발전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고 주장하였다(Leitch Review of Skills, 2006, p.2).

이와 같이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핵심능력에 관한 교육과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 제도 등은 이미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최근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학교 교육에서 익혀야 할 기초 능력으로써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주별 표준을 세운다거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교육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DeSeCo에 참가한 나라 중 하나로 뉴질랜드는 DeSeCo의 핵심역량 개념을 매우 충실하게 반영한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2006년부터 전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in New Zealand, 2006).

참 고 문 헌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2007).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계획(안)」,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
- 윤정일 외(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서울: 한국교육학회.
- 정미라 등 (2007). 「영유아기 핵심역량 표준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Ⅲ)」,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PISA 2006 결과 분석 연구: 과학적 소양, 읽기 소양, 수학적 소양 수준 및 배경 변인 분석」,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나라당(2007).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서울: 북마크.
- Athey, T. R. & Orth, M. S.(1999). Emerging competency methods for the future. *Human Resource Management*, 38(3). 215-226
- Boyatzis, R. E.(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Wiley.
- Burgoyne, J. (1989). Creating the managerial portfolio: Building on competency approaches to management development. *MEAD* 12(1). 56-61.
- Drucker, P.(1969). *The age of Discontinuity*, Harper & Row. (邦-2007, 上田淳士- 「『絶』の時代」, ダイヤモンド社).
- European Commission(2006). Decision No 1720/200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November 2006, establishing an action programme in the field of lifelong learning, Official Journal L 327 of 24 November 2006.
- Klemp, G. O.(Ed.)(1980). *The assessment of occupational competence*. Washington, D.C.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06). *Key competencies: The New Zealand Curriculum*.
- Mirabile, R. J. (1997).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Training and Development* 51(8). 73-77
- McClelland(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cClelland, D. (1993). Introduction. In Spencer, L. & Spencer, S. (Eds.), *Competence at work* (pp. 3-8). New York: John Wiley & Son.
- OECD (2005a).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France, Paris: OECD.
- Parry, S. R.(1996, July). The quest for competencies. *Training*, 48-56.
- Rychen, D. S. & Salganik, L. H. (eds)(2001).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Hogrefe & Publishers: Seattle-Toronto-Bern-Gottingen.
- Rychen, D. S. & Salganik, L. H.(2002). Strategy paper: An overarching frame of reference for a coherent assessment and research program on key competencies.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final report)*.
- Rychen, D. S. & Salganik, L. H.(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well-functioning society*. Hogrefe & Publishers: Seattle-Toronto-Bern-Gottingen.
- 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2003). *Key competencies: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Policy and Research: Research Bulletin(2). Glasgow, UK: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
- Spencer, L. & Spencer, S.(1993). *Competency at work: Model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Tatsuta, Y.(2008). Creation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social capital. a paper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toward social capital formation. Seoul, Korea.
- White, R.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79-333.

2009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OECD 회원국(40개국 대상 조사)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실시된 국제 학업성취도 조사(PISA)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능력은 1위, 과학능력은 7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학습동기, 흥미 수준은 매우 낮고 학교 소속감도 최저 수준 이었다. 2003년 PISA에 따르면,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동기는 38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 PISA에서 나타난 학교 소속감의 경우도 가장 낮아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 출석률도 높지만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기현 외, 2009).

동시에 좋은 학업성취도의 이면에는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OECD(2006)에 따르면,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25세 미만 응답자 중에서 만족한다(1~10점 중 7점 이상)는 응답비율은 44.9%에 불과하였다. 한국과 함께 학업성취도 최상위권을 점하고 있는 핀란드의 동일한 응답비율은 81.6%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입시 경쟁을 보여주는 일본도 50.3%로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을 키우는데 뒤쳐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읽고 쓰고 말하는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등 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역량(competency)이 중시된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나 암기보다는 창의력과 같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지식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OECD는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를 통해 핵심역량을 규명한 바 있으며(Rychen and Salganik 2003; OECD, 2005),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은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역량기반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전환 중에 있다(Eurydice European Unit, 2002).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식사회의 발달로 미래 인재의 핵심능력 및

자질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으나 핵심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미래인재상 등에 관한 구체화된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청소년기 핵심역량에 대한 진단과 제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청소년기 핵심역량의 영역체계와 측정도구를 확정하고 전국 규모로 실시된 2009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결과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조사 개요

(1) 모집단 및 표집틀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의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여 고등학생(1~3학년)이다.

표집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교육통계연보」이며 이 자료에 수록된 전국 초, 중,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12개 시도별 학생수를 구분한 후 각 시도의 학생 비율을 이용해 조사모집단을 층화하였다.

(2) 표본크기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통합조사의 부분 과제이며, 조사는 6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비례층화집락추출법으로 표본 추출하였고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표 1>은 최종적으로 응답한 결과를 시도별·학년별로 제시해 보여 주고 있다. 전체 응답표본수는 9,150명이며 회수율은 84.6%로 나타났다.

<표 1> 시도별·학년별 조사결과

구분	교급	총계	회수율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	850	78.3%	156	51	31	55	29	29	26	255	31	56	39	92
	초5	930	85.7%	145	57	66	53	29	22	31	244	43	61	61	118
	초6	1001	92.3%	174	55	59	61	29	32	32	217	26	62	89	165
중학교	중1	975	84.4%	152	66	35	38	33	24	74	223	35	100	96	99
	중2	875	78.1%	192	61	99	43	0	0	35	219	33	34	33	126
	중3	920	79.7%	153	66	34	64	37	97	0	216	29	64	65	95
고등학교	일반고1	787	83.3%	131	74	29	42	77	59	0	180	40	33	27	95
	일반고2	815	86.2%	164	22	35	31	80	27	39	187	26	49	61	94
	일반고3	742	84.8%	197	37	35	26	35	0	76	147	59	44	32	54
	전문고1	450	98.9%	27	30	35	30	36	0	34	98	32	21	51	56
	전문고2	431	94.7%	27	53	36	31	30	29	26	51	27	33	58	30
	전문고3	374	82.2%	25	58	29	31	35	29	28	29	35	24	29	22
계	-	9,150	84.6%	1,543	630	523	505	450	348	401	2,066	416	581	641	1,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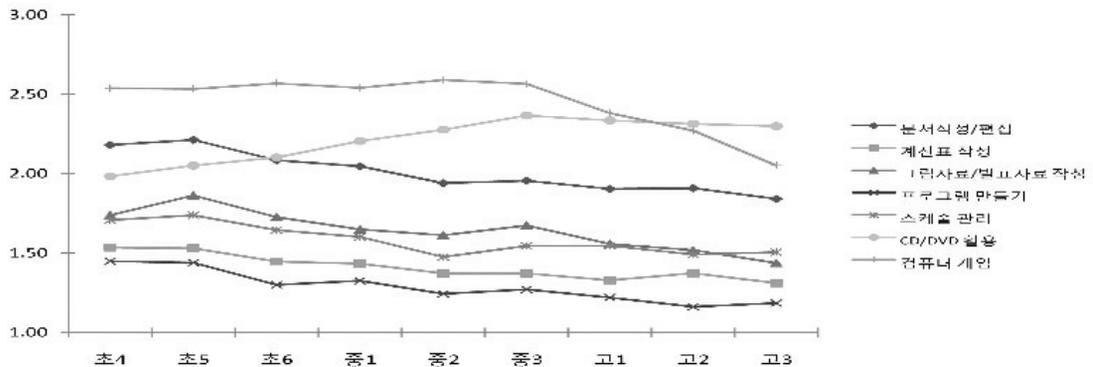
3. 조사 결과

(1) 지적도구 활용 영역 결과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영역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또는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핵심역량 지표를 확정하고, 이 영역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준을 측정·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측정지표들은 다양한 국제비교 조사들로부터 확보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진단조사에서는 정보활용 능력에 국한하여 정보통신 기기 및 매체의 활용,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통신활용 효능감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개발되었다.

① 컴퓨터 활용 현황

컴퓨터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게임하기(인터넷 게임은 제외), CD나 DVD를 시청하거나 정보 얻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서 작성 및 편집 등의 순서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활용 정도는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엑셀 등을 이용한 계산표 작성',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을 이용한 그림자료 및 발표용 자료의 작성',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 만들기' 등 학습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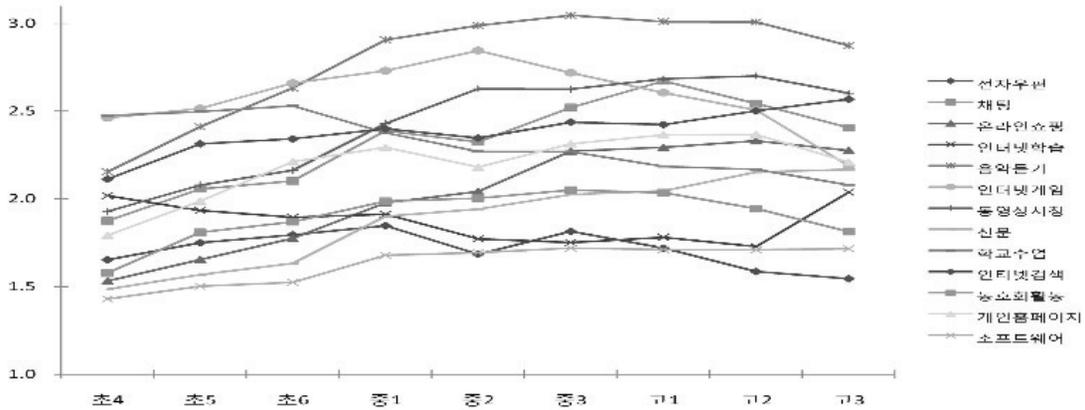


주: 전혀 사용안함=1, 한달에 1회 이상=2, 일주일에 1회 이상=3, 하루에 1회 이상=4의 평균임.

[그림 1] 학년별 컴퓨터 활용 현황

② 인터넷 활용 현황

인터넷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음악(노래) 듣기 또는 다운로드(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듣기 포함)', '인터넷 게임', '동영상 보기 및 다운로드',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검색' 등의 순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또는 업그레이드', '친구, 선생님 등과 전자우편(이메일) 주고 받기',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 등은 자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전혀 사용안함=1, 한달에 1회 이상=2, 일주일에 1회 이상=3, 하루에 1회 이상=4의 평균임.

[그림 2] 학년별 인터넷 활용 현황

③ 정보통신활용 능력

정보통신활용 능력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의미있는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나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요구, 정보접근, 정보분석 및 관리, 정보윤리 영역에 적합한 5개의 선다형 문항을 개발하였다.

정답을 맞힌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5개 문항 중 3-4개 문항을 맞힌 청소년이 55.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답을 맞힌 개수의 평균은 3.07(표준편차=1.35)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보활용능력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표 2] 성별 · 지역별 · 학교급별 정보활용능력의 차이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학생	1,437	46.53	9.99	1,879	49.74	10.36	3,316	48.35	10.33
	여학생	1,285	50.57	9.24	1,670	52.84	9.19	2,955	51.85	9.28
지역	서울	487	48.20	10.25	542	51.66	10.45	1,029	50.03	10.49
	광역시	785	47.94	9.60	1,274	50.92	9.83	2,059	49.78	9.85
	시군	1,450	48.79	9.84	1,733	51.26	9.87	3,183	50.13	9.93
합계	2,722	48.44	9.85	3,549	51.20	9.95	6,271	50.00	10.00	

주: 평균 및 표준편차는 정답=1, 오답=0으로 채점한 결과의 표준점수(T-Score)임.

④ 정보통신활용 유능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 능력과 함께 정보통신매체 활용의 유능감 및 태도를 병행하여 측정함으로써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초등학교(평균=48.63)이 중학교(평균=50.05)이나 고등학교(평균=51.01)보다 정보통신매체의 활용에 따른 유용성이나 유능감을 낮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 · 지역별 · 학교급별 정보통신활용 유능감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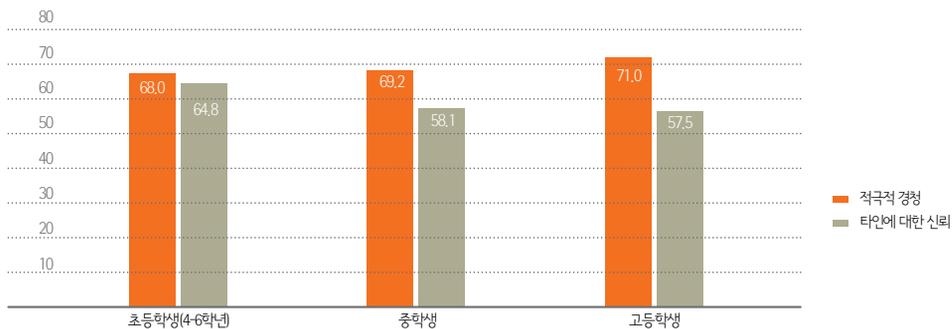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학생	1,383	49.09	11.16	1,448	49.98	11.20	1,897	50.90	9.68	4,728	50.09	10.63
	여학생	1,347	48.16	10.47	1,282	50.13	9.02	1,674	51.12	8.13	4,303	49.90	9.26
지역	서울	462	48.86	11.22	492	49.69	10.69	545	51.61	9.20	1,499	50.13	10.41
	광역시	732	49.48	10.42	788	49.64	10.11	1,281	50.96	8.77	2,801	50.20	9.63
	시군	1,536	48.16	10.88	1,450	50.40	10.13	1,745	50.85	9.07	4,731	49.84	10.08
합계	2,730	48.63	10.83	2,730	50.05	10.23	3,571	51.01	8.99	9,031	50.00	10.00	

(2)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이 연구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영역과 관련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역량 측정을 위한 검사 최중분항으로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및 협동’, ‘갈등 관리 및 해결’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개발되었다.

① 관계지향성 영역

관계 지향성 영역에서 타인과의 대화에서 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정도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초등학생(4-6학년)이 68.0점, 중학생 69.2점, 고등학생 71.0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에 대해 신뢰하고 정당하게 대우해 주는 긍정적인 태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뢰나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2〕 학교급별 적극적 경청과 타인에 대한 신뢰 점수 비교(100점 만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회, 사법기관, 경찰서, 정당, 국제연합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5.1%)과 정당을 신뢰한다는 응답(5.9%)이 가장 낮았다. 국제연합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경찰(30.8%), 사법기관(25.5%)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높았으며 예외적으로 국제연합에 대한 신뢰도 부분만은 예외적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표 4〉 학교급별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비율 비교(%)

구분	학교급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국 회	8.4	2.7	5.1
사법기관	31.1	21.3	25.5
경찰서	37.2	26.0	30.8
정 당	9.3	3.3	5.9
국제연합	48.1	51.9	47.1

② 사회적 협력(협동) 영역

사회적 협력 영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수준을 확인해 본 결과, 민주적 의사결정보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청소년이 19.5%,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모두 잘 살 수 있으면 된다는 응답이 18.5%,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0.8%로 잘못된 응답을 한 경우가 10% 이상 나타나 이에 대한 지식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수준(%)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세금을 내야 투표권이 있다	30.6%	30.9%	30.8%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낫다	19.5%	19.6%	19.5%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16.9%	19.7%	18.5%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	89.9%	93.6%	92.0%

③ 갈등관리 영역

갈등관리 영역에서는 높은 연령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있거나 발달적으로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단, 이민자 영향에 대한 태도를 측정했을 때는 중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 기대 응답 비율 (%)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 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	46.3	46.0	46.1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긍정적 영향	54.3	51.7	52.9
우리나라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 영향	40.8	38.4	39.4

한편, 본 연구의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진단조사 문항 중 일부는 국제비교조사의 문항을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비교 조사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2009년 UNESCO의 지원을 받아 IEA에서 주관하고 전 세계 3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시민교육 및 시민의식조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결과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국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을 대표하여 2009 ICCS 공식 참여기관에 포함되어 있다.

(3) 자율적 행동 영역

본 연구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영역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또는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핵심역량 지표를 확정하고, 이 영역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준을 측정·분석하였다.

DeSeCo 프로젝트에서 자율적 행동은 ‘개인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 매김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며 하위요소로 첫째,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둘째,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셋째,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비교 가능성과 측정내용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 행동을 개념화하고 이와 함께 세 가지 하위요소별로 문항 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다.

① 자율적 행동 하위 역량의 성별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자율적 역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패턴이해능력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욕구와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영역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기주장성(self assertion)을 발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정오답형 문항으로 구성된 패턴이해 능력에서는 반대로 남자청소년들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4〉 학교급별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비율 비교(%)

	성별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거시적 맥락	남학생	3.14	0.679	4.35***
	여학생	3.19	0.617	
목표설정	남학생	3.23	0.743	0.72***
	여학생	3.29	0.726	
욕구권리주장	남학생	3.55	0.774	24.44***
	여학생	3.64	0.687	
패턴이해	남학생	0.30	0.043	14.15***
	여학생	0.29	0.044	

***p < .001

② 자율적 행동 하위 역량의 지역별 차이 분석

거주 지역에 따른 역량의 차이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서울지역이 모든 역량에서 가장 높고 광역시 지역, 시군지역의 순으로 낮아졌다. 이 권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8> 거주지 권역에 따른 자율적 역량점수의 차이

	거시적맥락	목표설정	육구권리주장	패턴이해
서울	3,22	3,33	3,66	.639
광역시	3,17	3,26	3,60	.633
시군	3,14	3,24	3,57	.615
전체	3,16	3,26	3,59	.625
F값	10,228***	7,870***	9,726***	5,553***

***p < .001

<표 9>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율적 역량의 차이

	거시적맥락		목표설정		육구권리주장		패턴이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하층	3,062	0,839	3,062	0,984	3,480	0,930	0,653	0,262
하층	3,050	0,641	3,159	0,725	3,529	0,729	0,679	0,287
중하층	3,092	0,613	3,189	0,733	3,539	0,706	0,677	0,279
중간층	3,107	0,609	3,188	0,688	3,530	0,701	0,621	0,303
중상층	3,274	0,798	3,408	0,742	3,719	0,720	0,626	0,288
상층	3,424	1,046	3,576	0,789	3,859	0,806	0,580	0,293
최상층	3,413	0,807	3,467	0,969	3,751	1,095	0,443	0,304
F	39,506***		44,691***		30,880***		21,448***	

***p < .001

③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율적 역량의 차이

응답자들의 가정환경에 따른 자율적 역량과 그 하위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자기 가정의 생활수준을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점수를 근거로 역량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기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율적 역량점수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Duncan방식에 의한 사후검증결과 패턴이해 능력을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서 최하층이 중간층들 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최상층이 아닌 상층이 나머지 계층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이 연구는 전국 규모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해 보았다.

청소년기 핵심역량의 첫 번째 영역인 지적 도구 활용 역량 측정을 위한 검사 최종문항은 정보활용 능력에 국한하여 정보통신 기기 및 매체의 활용, 정보통신활용능력 등을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기 및 매체의 활용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도는 학교급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도는 초등학교보다 중·고교 시기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정도에 있어서 성별·학교급별 차이는 컴퓨터 및 인터넷 게임의 활용정도를 제외하면 여학생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정도가 남학생보다 높았다. 정보통신활용 능력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의미있는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나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통신활용 능력에 있어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정보활용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이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청소년기 핵심역량의 두 번째 영역인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측정을 위한 검사 최종문항은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동, 갈등관리 등이었다. 먼저 관계 지향성 영역에서는 경청능력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발달적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으나 신뢰, 사회적 접촉 등의 영역에서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협동 영역에서는 관계 지향성 영역에서와 같이 높은 연령층에서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치관심(중학생이 가장 낮음)과 같은 태도 측정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이해나 민주적 절차지식과 같은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도 발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식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나 발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소속감,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만족감, 행복도 연령이 감소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갈등관리 영역에서는 높은 연령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있거나 발달적으로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단, 갈등관리 영역에서는 이민자 영향에 대한 태도를 측정했을 때는 중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핵심역량의 세 번째 영역인 자율적 행동을 위한 검사 최종문항은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등이었다. 성별에 따른 자율적 역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정오답형인 패턴이해능력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욕구와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영역에서 여자 청소년들과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거주 지역에 따른 역량의 차이는 서울과 다른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세한 경향이 있었으나 영역에 따라 그 패턴은 달랐다. 거시적 맥락 영역과 목표설정 영역, 그리고 권익요구 영역의 역량점수는 서울과 부산지역이 가장 높았고, 패턴이해 영역의 점수는 광주와 부산이 가장 높았다. 부모 학력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하위역량과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에서 모두 뚜렷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역량도 낮고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역량 정도가 높았다.

참 고 문 헌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조문흠·강영배(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II : 총괄보고서. 서울 : 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2009). 아동·청소년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Eurydice European Unit (2002). Key Competencies.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OECD(2006). Society at a Glance.

Rychen, Dominique Simon and Salganik, Laura Hersh(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청소년기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핵심역량기반 학습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식기반사회에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읽고 쓰고 말하는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등 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역량(competency)이 중시된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나 암기보다는 창의력과 같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지식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를 통해 핵심역량 영역을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로 규명한 바 있으며(OECD, 2005),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은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역량기반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전환 중에 있다(Eurydice European Unit, 2002). 우리나라도 이에 맞추어 미래 인재의 핵심능력 및 자질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길러야 할 미래인재상 등에 관한 구체화된 정책적 제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기반 학습과정의 효과성을 살펴보고(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Duke of Edinburgh's Award)의 시범운영기관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고등학교에서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조사 실시와 더불어 추적조사를 통해 핵심역량기반 학습과정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밖의 활동영역에서 역량기반 학습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¹⁾

1) 김기현·맹영임·장근영 외(2009)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년도 고유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핵심역량기반 학습과정

개인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역량기반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전환하게 만들었다(표1 참조). 또한 유럽연합(EU)은 유럽교육 정보네트워크(Eurydice)를 통해 공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활동 영역에서 여러 가지 핵심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urydice European Unit, 2002).

〈표 8〉 거주지 권역에 따른 자율적 역량점수의 차이

	목표설정	육구권리주장	패턴이해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주)	· 영국 · 뉴질랜드 · 호주(빅토리아주) · 캐나다(퀘벡주)	· 일본 ¹⁾	· 포르투갈 · 벨기에 (프랑스어권)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넣을지 논의 중인 국가(주)	· 영국(북아일랜드) ·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 벨기에 (독일어권)	· 덴마크 · 오스트리아 · 룩셈부르크

주: 범 교과 접근 - 특정 교과를 넘어 포괄적으로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경우
교과 중심 접근 - 개별 과목들 내에서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종합적 접근 -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추진하는 경우

1) 일본은 역량을 생활력(生きる力)으로 개념화하고 교육과정에 포함시킴

출처 : Eurydice European Unit(2002),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2007),
Ministere de l'Education(2001), VCAA(2004), 文部科學省(2008).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의 역량 개념을 탐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교육 과정이나 자격체계에 도입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진행되었다(이무근 외, 1997; 정철영 외, 1998; 김미숙 외, 1998; 유현숙 외, 2004; 소경희, 2007; 윤명화·김진화, 2007). 이와 함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7)는 OECD의 핵심역량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에 기반하여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성, 예술적 감수성 등과 같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기반 학습체계 도입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적용되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중요한 개정방향 중 하나로 제시(교육과학기술부, 2009)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핵심역량기반 학습과정의 효과성

미국의 호라이즌 연구소(Horizon Research Inc.)에서 실시한 Inside the Classroom 연구와 뉴질랜드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조사표를 활용하여 국내 교실 학습과 활동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활동)과정 관찰 및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역량기반 학습과정의 특징은 학생중심의 효율적인 학습환경이 제공되고 자율적이고 자유롭고 수용적인 학습분위기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학습과정은 다양한 수업자료와 수업전략이 준비되며, 차별화된 수업진도, 시계열적·간학문적 수업내용과 학생중심·활동중심의 수업이 전개되고

있어 개개인의 학습참여수준은 준비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기관리 뿐만 아니라 언어·상징·텍스트의 활용에서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를 고등학생들과 국제성취포상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핵심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성취포상제 참여자에 대한 조사는 향후 효과성 검증이 가능한 중단연구를 위한 시발점으로 추진하였고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걸쳐 반복조사를 실시해 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핵심역량 강화프로그램이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과 같은 청소년기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전국모의고사성적으로 측정된 학업성적 결과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표 3〉 성별·지역별·학교급별 정보통신활용 유능감의 차이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례수	사전 평균	사후 평균	t	p	사례수	사전 평균	사후 평균	t	p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적극적 경청	59	3.59	3.77	-2.63	.011	73	3.48	3.57	-1.57	.121
문제해결 인식	62	3.51	3.67	-1.96	.054	73	3.47	3.55	-1.05	.297
타인조망 능력	60	3.28	3.36	-1.68	.099	74	3.18	3.22	-.915	.363
자율적 행동 영역										
거시적 안목	59	3.23	3.45	-4.02	.000	74	3.20	3.33	-3.09	.003
목표와 계획	60	3.26	3.47	-3.64	.001	73	3.22	3.28	-1.24	.220
권리와 욕구	58	3.62	3.77	-2.64	.011	72	3.60	3.71	-1.82	.074

▶ 청소년기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핵심역량기반 학습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2년간에 걸쳐 추진된 청소년기 핵심역량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교교육과 학교 밖 활동영역을 역량기반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개편하여야 한다. 먼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전통적인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조직하기 위한 기본 방향 또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논의에서 핵심역량은 중요한 개정방향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으며 현행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이 제안되고 있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나 해외 사례와 달리 교육과정 개편에서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이와 함께 현재의 개정 방향은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운영을 강조하는 접근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한계가 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통합적인 접근을 취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역량과 학습 영역 간, 교과 영역과 교과 외 학습 영역 간, 그리고 교과 영역 상호 간에 통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교육을 역량기반 학습체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사례처럼 역량기반 학습을 실현하는 시범학교 사업에서 출발해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뉴질랜드 교육현장의 자율적인 태도가 핵심역량중심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듯이 교육개혁은 일선학교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핵심역량 교육에 대한 지침을 내리기 보다는 교사들에게 핵심역량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며, 이를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각 학교와 교사들의 권한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2010년부터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전면 실시하지만 뉴질랜드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각 학교에서 각자의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할 뿐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교육현장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학교밖 활동영역과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서 다양한 접근법들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청소년활동분야에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부적응, 학업중퇴자에 대한 대안학교 연계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등에서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가 참여하는 연계프로그램이 일예이다.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에서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장기적 과제라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은 단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과학 파트너십 프로젝트(Science Partnership Project)」는 대학-초·중·고등학교간 연계의 좋은 사례이다. 청소년수련관의 '진로체험관', '자기주도적 학습' 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의 교육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례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학업중퇴 및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핵심역량 개념을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하게 변환하여 국가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자국의 고유한 핵심역량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해외의 교육과정 개혁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뉴질랜드는 사고하기,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 자기관리, 대인관계, 참여와 공헌하기 등 5가지를 핵심역량으로 규명했으며, 호주 빅토리아 주는 3가지 핵심역량(자신을 개인으로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이해, 세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으로 규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들은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범주의 핵심역량을 산출해 냄으로써 학교교육 개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거국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단일화된 핵심역량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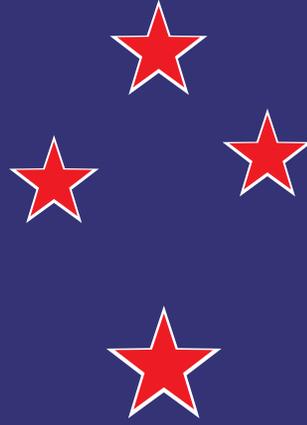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미래형 교육과정(안). 제8차 국민대토론회자료집.
- 김기한·김지연·장근영·소경희·김진화·강영배(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I : 총괄보고서. 서울 :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한·맹영임·장근영·구정화·조문흠·강영배(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II : 총괄보고서. 서울 :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숙·김현수·박종성·박윤희(1998). 기술분야 기초직업능력 인증제도 연구.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 소경희(2007). 학교교육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유현숙·김이나·김태준·김남화·이만화·장수명(2002).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김태준·이석재·송선영(2004).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I).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윤명화·김진화(2007).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서울 : 한국학술진흥재단
- 이무근 외(1997). 직업증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
- 정철영·나승일·서우석·송병국·이종성(1998). 직업기초능력의 연역 분류 및 하위요소 추출. 17(2), 15-38.
- 진미석·이수영·채창균·유한구·박천수·이성·최동선·옥준필(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Eurydice European Unit (2002). Key Competencies.
- Merrifield, J.(2000). Equipped for the Future, 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NIFL.
- Ministere de l'Education(2001). Quebec Education Program: Preschool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for English-medium teaching and learning in year 1-13.
-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VCAA(2004). Curriculum Victoria: Foundations for the Future. -Summary report of an analysi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urriculum and standards documents for the compulsory years.



✈️ 해외동향리포트

- 뉴질랜드의 핵심역량중심 교육 체계
- 말레이시아 청소년정책소개



뉴질랜드의 핵심역량중심 교육 체계

장근영 연구위원

1. 서론 : 사회문화적 배경

뉴질랜드는 이웃나라 호주와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국가이다. 특히 뉴질랜드인들이 (호주에 비교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원주민을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하여 백인 중심의 국가를 건설한 호주와는 달리 뉴질랜드는 마오리족 원주민들과 비교적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과 제휴를 통해 다문화 국가를 건설했다는 점이다. 지금도 뉴질랜드에는 공용어로 마오리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회나 주요 기관의 구성원들의 일정비율을 마오리족 원주민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있다. 이런 다문화적 환경에서 국가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교육이었다. 즉, 뉴질랜드는 이전부터 국가의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호타협과 존중정신은 교육에서도 나타나서 교육의 주요 주체들 중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일이 거의 없다. 교육부는 주요 주체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부 보다는 오히려 교사나 학생의 영향력이 더 강한 분위기다. 실제로 본 연구진이 뉴질랜드의 학교 탐방을 추진할 때 교육부를 통해서 학교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으나, 현지 에이전

트를 통해서 학교의 행정담당자와 직접 접촉을 하자 의외로 쉽게 탐방조사 뿐만 아니라 학습과정 촬영까지 허락받았다. 그만큼 개별학교의 자율권이 강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내년인 2010년에 핵심역량기반 교육커리큘럼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서 뉴질랜드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하달하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 각자의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뿐이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기존의 교육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반면, 어떤 학교는 자기들의 교육방식으로도 핵심역량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극히 부분적인 변화만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자율적인 기반에서 자율적인 행동역량이 개발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역량만 단순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그 자신감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고 확고해진다. 뉴질랜드 교육계가 핵심역량기반 교육제도를 준비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은 그 자체로 뉴질랜드 사회구성원들의 핵심역량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자율적인 행동도 지적 도구의 활용도, 이질적인 집단 구성원과 의사소통하는 능력도 모두 거기에 담겨있었다.

이곳에서 이루어낸 것보다 그것을 이루어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즉 교육현장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뉴질랜드 핵심역량교육의 이론적 체계

어쨌든 이 뉴질랜드는 2005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공교육 체계를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 프레임으로 개혁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그 개혁과정은 앞서 기술한 뉴질랜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선 교육계는 뉴질랜드가 처한 노동생산성의 저하, 국가적인 변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감한 교육 개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공교육 개혁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추진해온 DeSeCo 프로젝트(OECD, 2005)를 기초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그 개혁 과정은 철저한 상호이해와 협조의 과정이었다. 뉴질랜드 교육부, 기업 그리고 학계라는 정책·고용·연구개발 분야를 대표하는 3개 그룹이 이런 핵심역량 개념을 검토하고 토의하면서 뉴질랜드의 공교육 부문의 핵심역량 중심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수정교육과정의 초안(Ministry of Education, 2006)은 이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의 핵심요소로 설정하고자 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혁신하면서 공교육의 목표를 다음 5개의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육성으로 설정했다. 그 5대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역량 1. 타인과의 관계 맺기(Relating to others)

역량 2. 자기 관리하기(Managing self)

역량 3. 참여하고 기여하기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역량 4. 생각하기 (Thinking)

역량 5. 언어, 상징 및 문자 사용하기(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s)

핵심역량개발 중심의 공교육체계는 전통적인 기술교육 중심의 교육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미리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장 생활 장면으로 연결되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뉴질랜드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의 안내서에서도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프레임은 평생학습을 전제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06). 실제로 뉴질랜드의 핵심역량 교육시스템의 구성에는 국가, 교사, 그리고 기업이라는 3대 주체가 공동 참여했다. 즉, 핵심역량교육은 이들 모두의 이해와 이상과 원칙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이다.

뉴질랜드 교육부가 강조한 핵심역량은 의무교육기간의 국가 교육과정에서만 아니라 그 이전의 유아교육, 그리고 의무교육 이후의 대학 및 직업 교육에서도 개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국가에서 규정한 5가지 핵심역량은 유아교육-초·중등교육-고등교육을 통해 연계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평생학습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출처: Ministry of Education(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p. 42.

[그림 1] 뉴질랜드 핵심역량의 유아·초·중등·고등교육 간 연계

뉴질랜드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교육과정 구조를 보면, 학생들을 자신감 있고, 서로 연계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학습자로 길러낸다는 비전(vision) 아래 이를 구

현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이 추구하는 목표와 연결된다. 뉴질랜드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교육과정 구조를 보면 '학생들을 자신감 있고, 서로 연계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학습자로 길러낸다'라는 비전(vision) 아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앞서 언급했던 핵심역량이며, 이 외에 '가치(value)와' 학습영역 (learning area)이라는 두 범주가 있다. 여기서 '가치'란 학생들이 추구해야 할 중요하고 바람직한 신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탁월함(excellence), 혁신·탐구·호기심 (innovation, inquiry, curiosity), 다양성(diversity), 공평(equity), 공동체와 참여(community and participation), 생태적 지속가능성(ecological sustainability), 성실(integrity), 존중(respect)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학습영역'은 종래 여러 개로 나열된 교과를 좀 더 큰 영역으로 묶은 것으로, '예술', '영어', '언어학습', '과학', '공학', '사회과학', '수학과 통계', '건강과 체육' 등 8개가 제시되어 있다.

3. 뉴질랜드 핵심역량교육의 실제

뉴질랜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개정될 국가 교육과정의 학교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정 초안이 나온 2006년부터 6개 학교에 핵심역량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Boyd and Watson, 2006). 이것은 핵심역량이 기존의 학교 교육 과정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유용한 자료로서 기여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역량중심의 공교육 체계로 전환하기 전에 이 교육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확인하고자 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문제 1. 각 학교는 교육체계의 변환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문제 2. 교육체계의 전환으로 인해 학교의 전반적인 관행과 문화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어떠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나?

문제 3. 교육체계의 전환으로 인해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교육방식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었으며,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문제 4. 교육체계의 전환으로 인해 교실 환경과 학생들의 학습 기회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었으며,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운영에 참여한 학교 지도자들은 모두 핵심역량 교육체계가 매우 적절한 시기에 개발되었다고 보았다. 시범운영을 하기 전에 먼저 각 학교 교사들은 기존 교육방식에 대한 검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된 목적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교육의 혼돈"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기존의 교육과정과 연관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였다. 참여의 두 번째 동기는 이들 모두 기존 교육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체계가 바로 그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는 자기 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그들의 학교 환경에 특유한 교수법과 실행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 지도자들은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인 태도,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기술이 전수되는 "감추어진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교육체계가 학생-중심의 교육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 결과 이들은 적극적으로 전환에 참여할 수 있었다. 6개의 모든 시범학교에서 핵심역량교육 과정의 방향설정에는 학교 교장과 임원들이 관여하였다. 학교의 변화를 다룬 연구들은 리더십을 집중하는 것이 변화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스스로를 관리자라기보다는 전문적 교육자로 자리매김한

학교 지도자들일수록 이런 기회에 매우 열성적이다. 시범 학교와 교육개혁추진팀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이들은 다른 참가학교들과 여러 가지 전문적인 논의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참가학교 간에 핵심역량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서로 아이디어와 경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교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자 했다. 모든 학교는 직원들 일부에게 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했다.

시범학교의 교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비유와 개념적 모형을 사용했다. 각 학교의 지도자들은 모든 교원들이 우선 스스로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만들고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한 학교 지도자가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악보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 교원들이 핵심역량개념을 심층 조사했으며 다른 학교에서는 **선발대** 팀이 나머지 교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실시과정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 제공 : 교육과정 전환을 위해 모든 학교지도자들은 교원들에게 핵심역량에 대한 정보를 프리젠테이션과 읽을거리, 다른 학교의 참관이나 견학 등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또한 어떤 학교지도자들은 이미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대안, 예를 들어 평생학습에 대한 아이디어와 핵심역량개념간의 연관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② 핵심역량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짓기 : 교원들이 교육개혁을 새로운 추가 업무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 지도자들은 주의를 기울여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기존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시켰다. 교사들은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현행 교육과정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내기도 했다. 일

부 교원들은 “우리는 졸업생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나?” “유능한 학습자는 어떤 모습인가?” 같은 질문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교육관과 핵심역량 교육과정간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학교 지도자들은 교원들이 자기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도 이미 핵심역량 교육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③ 공유된 언어를 개발 :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개념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교원들이 스스로 수집한 정보와 토의를 통해 자기들의 학교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이는지를 기술하는 양방향의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핵심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공유된 언어를 개발했다.

④ 핵심역량을 “아이들의 대화” 로 유도 : 개념의 양방향 공유는 교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도 참여했다. 대부분의 시범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핵심역량개념을 이해하고 교사들과 협력하여 핵심역량 교육방법을 스스로 개발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교원들은 학생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예전에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참신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모습에 놀랐다. 이 과정을 통해 교원들은 학생-중심의 교육체계가 학생들과 핵심역량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공유 언어의 개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핵심역량 교육체계를 이해하게 되고, 단지 내용의 결과뿐 아니라 학습 과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며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습 목표와 핵심역량개발의 성공 기준을 설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인식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교

사들은 학생들이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논의에 매우 잘 응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논의를 통해 교사와 학생은 개별적 차이와 필요에 대해 말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⑤ **핵심역량을 형식적 평가절차와 연계시키기** : 핵심역량을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중요한 주제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은 기존의 수행평가에서 얻은 자기들만의 지식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비공식적으로 평가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가 형식은 신규 초안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06)에 제시된 형식과 매우 비슷하다. 이런 형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학생의 목표 설정
- 핵심역량의 성취 기준을 학생과 공동 구축
- 자기 평가 또는 동료 평가
- 학생들과 그들의 핵심역량개발에 대해 토의
- 내성(reflection) 혹은 내성적 일기(reflective diary)의 사용
- 포트폴리오 만들기.

⑥ **전문지식을 공유할 공동체의 구성** : 전문적 논의를 위한 많은 기회, 아이디어에 따른 실험 그리고 반성의 시간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화는 모든 시범학교의 주요 특징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핵심역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의 소유권이 커지고 개입수준은 높아졌다. 교사들이 개발한 전문적 공동체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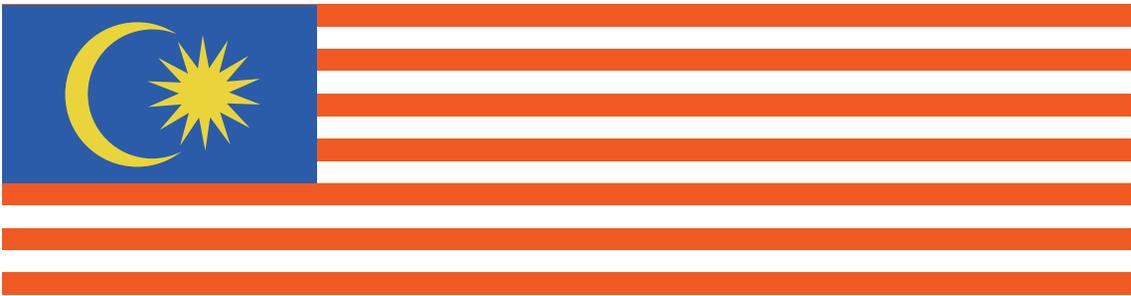
- 직업상의 믿음에 대해 공유된 규범과 가치
- 학생의 학습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춤
- 교사들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과정
- 학생의 성취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반영적 대화

참여를 지원하는 과정

- 실행에 있어 경쟁하기 보다는 함께 하는 요소 강조

4. 결론

연구진이 뉴질랜드의 교육현장을 지켜보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연구·행정·실행 기관들에 깊이 뿌리내린 자율적인 태도였다. NZCER의 Hipkins 박사는 핵심역량중심 교육개혁이 성공한 비결을 묻는 연구진에게 절대로 상부에서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은 일선학교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역량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이 아니다. 교육부에서 할 일은 교사들에게 핵심역량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며, 이를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각 학교와 교사들의 권한에 위임하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의사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청소년정책소개〉

Haryanti Hassan (University of Malaya, 본원 국제인턴)

“Malaysian Youth, to be ready for global challenges. One Youth One Malaysia.”

Table Contents

- General Information about Malaysian Youth
- National Youth Development Policy
- Education System in Malaysia
- Youth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 About Ministry of Youth and Sports
- Youth Figures

Definition of Youth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Policy in Malaysia defines youth as people age between 15 and 40 years. It stipulates further that the main focus of youth development programs and activities in the country should be young people aged 18 to 25 years (MOYS 1997).

Structure and Mandate

Youth development in Malaysia is managed primarily by three major organizations : the National Youth Consultative Council, the Ministry of Youth and Sports, and the Malaysian Youth Council.

National Youth Development Policy (NYDP)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Policy of Malaysia was first issued by the Cabinet in 1985 and revised in 1997. It serves as a framework for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youth programs in the country.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Policy of 1987 has the following as its main objective :

“ To establish a holistic and harmonious Malaysian Youth force imbued with strong spiritual and moral values, who are responsible, independent and patriotic, thus, serving a stimulus to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in consonance with vision 2020.”

The policy includes 6 strategies :

- 1.Enhancement of the knowledge base in various] subjects to develop the complete of youth.
- 2.Inculcation of moral values and development of a positive and creative attitude in youth.
- 3.Equipping youth with state-of-art technical knowledge and vocational skills, as well as involving them in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line with the demands of nation-building.
- 4.Engagement of youth in societal and voluntary activities that lead to a healthy and dynamic lifestyle that would nurture youth into responsible leaders of high caliber.
- 5.Encouragement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mongst government agencies, NGOs and the private sector for the benefit of youth development.
- 6.Encouragement of youth to further promote closer ties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with international communities (MOYS 1997).

Education System in Malaysia

The Malaysian education system encompasses education beginning from pre-school to university. Pre-tertiary education (pre-school to secondary education)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while tertiary or higher education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MOHE). The vision of the Government is to make Malaysia a centre of educational excellenc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rimary education (a period of 6 years) and secondary education (5 years which encompasses 3 years of lower secondary and 2 years of upper secondary) make up 11 years of free education.

The admission age to the first year of primary education is seven. Primary schooling is mandatory for all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7 and 12. Students sit for common public examinations at the end of primary, lower secondary and upper secondary levels.

Post-secondary Education

Upon completion of secondary education, students can opt to pursue 1 to 2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This is the university entrance preparatory course. In total, the 12 years of school education serves as the basic entry requirement into Year One of a bachelor's degree programme i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Government-funde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Government provides more than 95%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s well as about 60% of the tertiary educ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providing the balance.

Students in Malaysia can choose to study either

- 1) locally-run programmes,
- 2) twinning academic programmes,
- 3) vocational, technical or skills training.

The method of delivery is a Diversification with variety of study methods is available to satisfy students' needs and interest :

- 1) traditional classroom teaching
- 1) e-learning,
- 2) long distance learning,
- 3) flexible learning,
- 4) open learning,
- 5) cross border learning and
- 6) mixed learning.

Tertiary education providers consist of two major groups :

Two major categories of Higher education providers in Malaysia

Public	Private
(Government)	(Commercial Groups)
Public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for example, public universities, polytechnics, community colleges and teacher training institutes.	Private (private-funded)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PHEIs), for example, private universities, private university colleges, foreign branch campus universities and private colleges.
Public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consist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lic universities - Polytechnics - Community colleges 	Privat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consist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vate universities and universities colleges - Foreign branch campus universities - Private colleges
(A) Public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government-funded (public)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consist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lic universities which offer bachelor's degree and postgraduate programs, with some offering programs at diploma level > polytechnics and community colleges which offer certificate and diploma level programs 	

The Malaysian National Education System comprises of the following levels of education:

Pre-school / Kindergarten education for children aged 4 to 6

Primary education from age 7 to 12 (Standard 1 to Standard 6 for 6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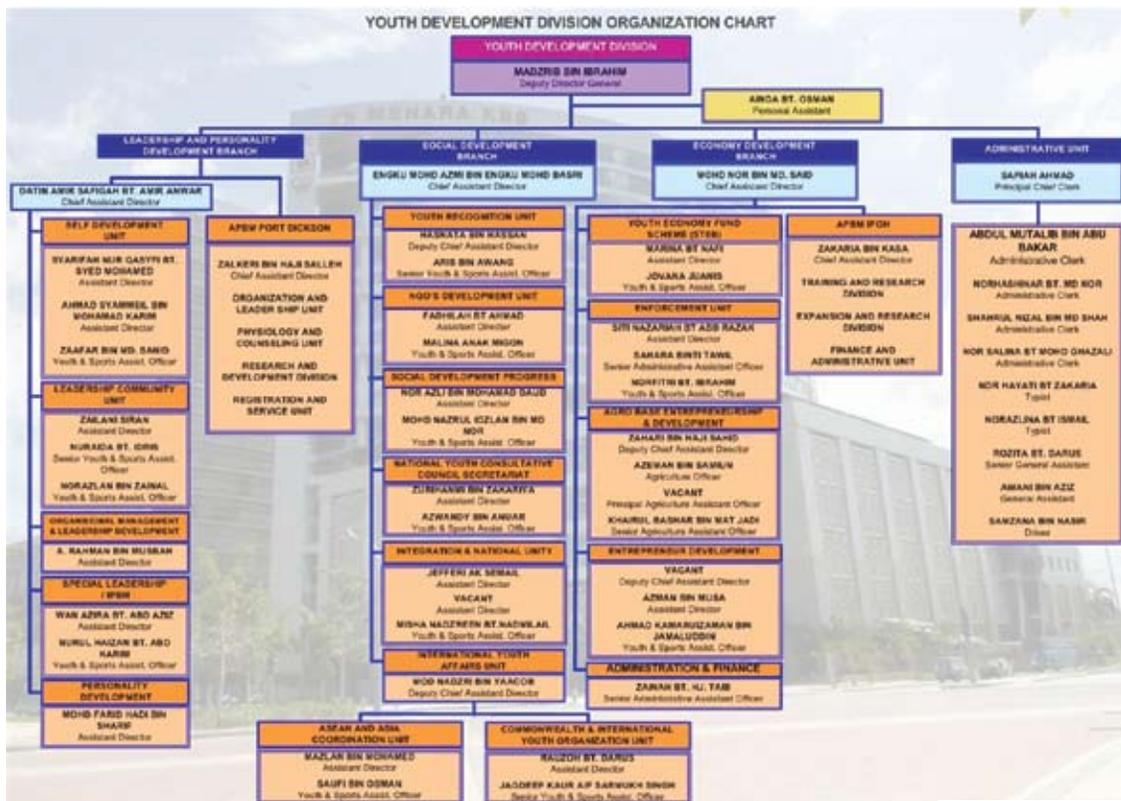
Secondary education from age 13 to 17 (Form 1 to Form 5 for 5 years)

1) Lower secondary from age 13 to 15 (Form 1 to Form 3 for 3 years) 2) Upper secondary from age 16 to 17 (Form 4 to Form 5 for 2 years) with the option to choose either: a) Academic secondary education b) or Technical/Vocational secondary education c) or Religious secondary education

Post-secondary education / Pre-university from age 18 (for 1 to 2 years) either Form Six (for 1.5 years) or Matriculation (for 1 year)

Tertiary / Higher education a) Certificate and Diploma Education at Polytechnics / Colleges from age 18 onwards b) Education at Teacher Training Institutes from age 18 onwards c) Undergraduate studies from age 19 or 20 (for 3 to 5 years) d) Postgraduate studies [Master's Degree or Ph.D studies, after acquiring a Bachelor's degree] (for 1 to 5 years)

Youth Development Division Organization Chart



Youth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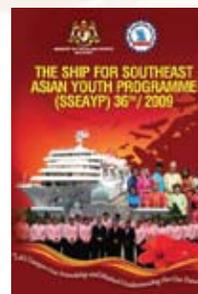
- Sports complex
- Rakan Muda Complex
- International Youth Centre
- Malaysian Youth Development Academy
- Malaysia Youth Council
- Youth and Sport Complex

Training Centre

- National Youth Skill Institute
- Higher National Youth Skill Institut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rogram

- The Ship Southeast Asian Youth Program (SSEAYP)
- Malaysia-Korea Intergovernmental Youth Exchange Program
- Malaysia-Indonesia Intergovernmental Youth Exchange Program
- Malaysia-Singapore Intergovernmental Youth Exchange Program
- Malaysia-China Intergovernmental Youth Exchange Program
- Malaysia-Egypt Intergovernmental Youth Exchange Program
- Malaysia-Japan Intergovernmental Youth Exchange Program
- International Seminar on Youth Behavior



Youth Events Participation Program



- *National Youth Day*

- Period : Mei – June
- Venue : Malacca
- No. of Participant : 300
- Program : performances, exhibition, community work



- *Selection Camp for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rogram*

- Period : April
- Venue : APBM Port Dickson
- No. of Participant : 100 - 150
- Program : discussion session, presentation, exploration activity, talent ID / cultural, debating session

- *Crime Free Generation*

- Period : May
- Venue : Kuala Lumpur
- No. of Participant : 120
- Program : performances, exhibition, community interaction, tour and visits.

- *Executive Talk Program*

- Period : December
- Venue : Kuala Lumpur
- No. of Participant : 150
- Program : volunteer work, talk

- *Integrity Seminar for Youth Leader*

- Period : June
- Venue : Kuala Lumpur
- No. of Participant : 60
- Program : conference, discussion, resolution session

Ministry of Youth and Sports Malaysia

Background

Early years

The Ministry of Youth and Sports was incorporated in 1953 with the formation of the Culture Division under the Department of Public's Welfare. The Culture Division was given the responsibility to handle all matters pertaining to Malaysia's youth. Later in 1964, the Culture Division was transferred unde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a Youth Division was formed under the same Ministry to handle and encourage the growth of associations involving youth activities. A Sports Division was also formed unde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The Ministry of Youth and Sports was only formed on 15 May 1964 in conjunction with the National Youth Day of that year. In 1972, the Culture Division was established and Ministry Youth and Sports was changed to Ministry of Culture, Youth and Sports until 1987, when the Culture Division was transferred under Ministry of Culture, Arts and Tourism. With the transf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the Ministry of Culture, Youth and Sports reverted to its original name of Ministry Youth and Sports until today.

Ministry of Youth and Sports (MYS) was given the mandate to implement the policies of the Malaysian government,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Youth and Sports development.

Objective

To develop Malaysian youths who are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balanced; responsible, independent, patriotic, with high voluntary spirit in contributing towards the nation's development and well being.

Vision

The Malaysian youths to be ready for global challenges through positive values, knowledge, skills, ethics, patriotism, voluntary spirit and quality lifestyle.

Mission

To build a generation of Malaysian youths who are outstanding in leadership, entrepreneurial and management skills by instilling positive values and a healthy lifestyle to strengthen the national integration and identity in line with Vision 2020.

Functions

- To organize relevant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mes for the youths in all sectors including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youth organizations and NGOs.
- To strengthen the on-going leadership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rogrammes such as self- confidence, family institutions, spiritual and community, in order to produce responsible youths.
- To enhance entrepreneurship and ICT training programmes to provide the necessary facilities a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youths to be more independent and able to create an excellent career path.
- To strengthen the youth associations/organizations to increase participation and support from the young generation.
- To instill values such as volunteerism and patriotism; understanding of globaliz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st youths.
- To encourage and implement activities as well as provide

facilities for a healthy lifestyle.

Client's Charter

- To provide honest, efficient, accurate and speedy services in a friendly environment in attending to your complaints about our services.
- To provide information and assistance with regards to training programmes and facilities provided under our youth development platform
- To guide, advise and implement youth development activities and programmes in line with the National Youth Mission.
- To assess and approve relevant projects and activities by youth associations under RM30,000 within one month.
- To evaluate and recommend relevant projects and activities by youth associations above RM30,000 within two months.
- To monitor and assist all youth associations and to ensure their vitality
- To notify the clients on the status of their economic loan application within 2 months.
- To assess and offer youth candidates to atte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youth developmental activities.
-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youths in various programmes and activities to instill unity, solidarity and esprit de corps
- To offer international programmes to eligible candidates

Strategy

MYS's strategies in achieving our objectives are:

- 1.To emphasise on mind and attitude change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generation of youth that is responsible, dynamic and in equipped with good leadership skills via a variety of programmes that are organised on district, sta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2.To provide formal courses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Youth Skill Development (IKBN) to equip the youth with a multitude of vocational training and skill development as well as entrepreneur aptitude so they can be independent;
- 3.To get more Malaysians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ir live by adopting the 'Sports for All' strategy as well as by introducing the 'Active Malaysia' concept;
- 4.To improve the achievement in sports towards the standard of excellence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arget Market

In order for MYS to play an effec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youth and sports, it is imperative for MYS to first determine the target market or clients for the services provided.

This enables MYS to plan an effective youth and sports programme as well as to ensure the objectives and messages are disseminated to the right target.

The target market for MYS comprise:

- All Malaysians
- Youth from the age of 15 – 40 (National Youth Development Policy)
- All Athletes of High Performance Sports (National Sports Council Act)
- Government Agencies
- Sports Organisations (Sports Development Act 1997)
- Youth Organisations
- NGOs

Quality Policy

Committed towards maximum clients satisfaction by making the needs of the clients a priority and continuously taking positive steps towards the improvement that meets the needs of clients in order to create clients that are trained, skillful and knowledgeable.

Quality Objectives

1. Department of Skill Development.

- To ensure 75% of candidates who receive the offer turn up;
- To ensure less than 20% of IKBN application forms are rejected
- To ensure more than 90% of IKBN students receive full certificates; and
- To ensure more than 95% IKTBN Sepang students who took the short term courses receive their achievement certificates..

2. Quality Administration and Committee Branch.

Implement Internal Quality Audit twice a year.

3. Training Branch

Implement 90% of the planned programmes

4. Financial Branch.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uppliers twice a year.

5. National Institute of Higher Skills for Youth (IKTBN) Sepang.

- Offers 20 courses in annually ; and
- Conduct training for 100 participants annually

6. National Institute of Skills for Youth (IKBN) Seri Iskandar.

Ensure 95% of trainees receive the Malaysian Standard Skill Certificate (SKM).

Youth Figures



Name : Khaireel Azlee Bin Abdul Aziz

Date of Birth : 16 November 1984

Organiz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Youth Movement Malaysia (Registered under The Registration Of Societies and Youth Development Act 2007 by Ministry Of Youth And Sport Malaysia)

Position In Organization : Founder And Chairman (2007 until Now)

Program Participation :

-*Selection Camp for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rogram 2008*

Organized By Ministry of Youth And Sport Malaysia & SSEAYP International Malaysia(18-20 April 2008)

- *National Youth Convention 2008*

Organized By Ministry of Youth And Sport Malaysia & Malaysian Youth Council

- *International Seminar On Youth Behaviour*

Organized By International Youth Center (22-29 June 2008)

- *Integriti Seminar for Youth Leader*

Organized By Malaysian Youth Council & Malaysia Institute of Integriti

- *Ship For South East Asian Youth Program 2008 (SSEAYP)*

Organized By Japan Government with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Organization Japan.

(10 October 2008 - 27 December 2008)

Japan-Brunei-Indonesia-Thailand-Vietnam-Philippines)

- *GLOBAL LEGAL ACTION ON CLIMATE CHANGE: AN INTER-GENERATIONAL ECO-REVOLUTION (GLAC-CIER) Tagaytay*

Invitation From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The Philippines (28-31 Januari 2009)

- *The Launching of Free Crime Generation in Bukit Jalil*

Organized By Ministry of Youth And Sport Malaysia (8 Mac 2009)

Program Secretariat :

- CYP Consultative Meeting (Leadership And Capacity Development Workshop For Regional Youth Caucus)

Jointly Organized By Ministry of Youth And Sport Malaysia and Commonwealth Youth Programme Asia Centre India. (8-11 January 2009)

- Selection Camp for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rogram 2009

Organized By Ministry of Youth And Sport Malaysia & SSEAYP International Malaysia (3 -5 May 2009)

- Discussion Panel For Briefing and Meeting of Malaysian SSEAYP Delegated 2009

Organized By Ministry of Youth And Sport Malaysia & SSEAYP International Malaysia (31 Julai 2 August 2009)

- Malaysia International Youth Programme 2009 (Crime Free Generation International)

Organized By Ministry of Youth And Sport Malaysia & SSEAYP International Malaysia (12-17 May 2009)

- Indonesia Malaysia Youth Exchange Program 2009

Organized By Ministry of Youth And Sport Malaysia & Indonesia Government (2 August - 11 august 2009)

- Korea Malaysia Youth Exchange Program 2009

Organized By Ministry of Youth And Sport Malaysia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Korea Youth Exchange Center (11-21 August 2009)

District Program:

- Speak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Talk on Youth Development Program (How Youth Can Contribute to the country by using all the free things on Internet) Sekolah Menengah Sri Tiram Tanjung Karang Selangor

Organized By The Department Of Youth And Sport Kuala Selangor, Kuala Selangor Youth Council And Information

Technology Youth Movement.

(10 May 2009)

- Speaker for Kelab Rakan Muda Kuala Selangor & Tanjung Karang Blog Project.

Talk And Class Lesson on building efficient blog for youth development

Organized By The Department of Youth And Sport Kuala Selangor, Kelab Rakan Muda Kuala Selangor & Tanjung Karang & Information Technology Youth Movement Kuala Selangor.(28 May 2009)

- Speak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Talk on Youth Development Program (How Youth Can Contribute to the country by using all the free things on Internet) Homestay Program For Kuala Lumpur Selected College.

Organized By The Department Of Youth And Sport Kuala Selangor, Wilayah Persekutuan & Kuala Selangor Youth Council.(30 May 2009)

Preparation Of Selangor State Youth Day.

Organized By The Department Of Youth And Sport Klang. (29 May 2009)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밴쿠버 영웅들과의 인터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훈, 모태범, 이상화 선수와의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2010년 3월 18일(목) 한국체육대학 빙상장에서 이명숙 원장을 비롯해 본원 직원(이창호 연구위원, 구자운 연구보조원, Haryanti Hassan 국제인턴)과 세 명의 한국체대 금메달리스트가 참석한 가운데 30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터뷰가 자신의 꿈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쾌속(快速)세대」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진발췌 上 pr.innews.com 下 isblog.joins.com



이명숙 원장(이하 원장):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이들
한테 희망을 주고 있거든
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우
리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에 대해서 궁금한 것과 알고 싶은 질문 몇 가지를 뽑
아 봤습니다.

이창호 박사: 우리 연구원은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
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어
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 주시면 그 청소년들에
게 많은 용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자
리를 마련했습니다.

Q. 자신의 소질과 특기가 빙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
견하게 되었나요?

이승훈 선수: 저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많은걸 했
어요. 악기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운동도 여러 가지
를 하고, 초등학교 수업이 워낙 다양하게 많았어요.
예체능 수업이 많았어요.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빙상이었고 소질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좋아
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니깐 부모님께서
저를 지원해 주시고, OO사립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수업이 다 있었어요.

원장: 사립학교이니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학생
들이 선택할 수 있고 맛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
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공립학교 등에서는 여건이 받
쳐주지 않아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기회가 제한
되고 따라서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조기에 발견할 기
회가 적은 것이지요.

이승훈 선수: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를 접하기가 어

렵죠.

이상화 선수: 저도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해 봤었어
요. 제가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노랑 스케이트를 같
이 했었는데 솔직히 피아노를 하기가 좀 힘들었죠.
스케이트에 소질이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고서 스케이트를 탔는데 지금 생각
해보면 그때 제가 만약에 스케이트를 안타고 피아노
를 쳤더라면 이렇게 까지 성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피아노를 해보고 싶어요.

원장: 난 부모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나 이게 좋아 나한테 맞는 거 같아」 고 하는데 아
이가 원하는 대로 지켜 봐 주고 기회를 주면 정말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
터 부모님이 스케이트 타는 걸 허락한 거지요?

선수들: 네

모태범 선수: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저도 여러가지
다 해봤어요. 인라인도 타보고 골프도 쳐보고 다 해
봤는데 제가 제일 흥미 있게 했던 건 스케이트 같아
요. 제 기억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처음 탔는데 그때
재미있었어요. 취미로 처음 시작하게 스케이트였어
요.

Q. 처음에는 이렇게 재미가 있어서 시작을 했어도 연
습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힘든 훈련을 어떤 생
각을 하며 극복해 나갔는지요?

이상화 선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까지 목표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국내
대회 입상하는 게 목표였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국가
대표 되는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었어
요. 그리고 나서 저의 꿈은 세계대회 나가서 상위권

안에만 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되고 나니까 아시아 게임 금메달이나 올림픽 금메달과 같은 목표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해왔던 거 같아요.

모태범 선수: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는 힘든 훈련을 할 때 어머니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Q. 「내가 꼭 해야지」 하면서 어려워할 때 힘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네요. 보통 때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나요?

모태범 선수: 위험한 건 말씀 안드리구요.(모두 웃음) 잠을 많이 자요. 아무것도 안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그러면 그 다음날은 편해요. 힘도 생기고 피로 회복도 되고.

이상화 선수: 저도 일단은 휴식을 많이 취하는 편이구요. 또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로 많이 푸는 편이에요. 일단 대화가 돼야 저도 속내에 있는 마음을 털어 놓으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해소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 만나서 대화하는 편이거나 일단은 잠을 잔다거나 그런 거 밖에 없는데요.

이승훈 선수: 저도 뭐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하면 풀리죠. 근데 혼자 있을 때 책에 나온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명언들 그런 게 머릿속에 꽂 들어와요. 그러면서 「아 나도 이뤄야겠다」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Q. 지금 기억나는 명언 있으세요?

이승훈 선수: 「공부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근데 공부가 세상의 전부가 아닌데 그거 하나 못 이루어서

야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운동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지금 하는 이 운동이 힘들어서 포기하면 나중에 다른 일도 다 못할 것 같아요. 하는 동안은 이걸 잘 하지 못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다 그만뒀을 때에야 다른 일을 해도 후회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거 보면서 그렇게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자극받아서 더 하게 되고...

Q. 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꿈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게 꿈이었나요? 아니면 뭐...

이승훈 선수: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건 운동선수들의 마지막 꿈이죠. 최종꿈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꿈」 이었고 그 꿈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원장: 제가 심리학자거든요. 잠 많이 잔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데 나하고 똑같네요. 저도 사실 잠자고 나면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그전 저녁에 뭐 피곤하고 이랬던 거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아침에 생기있게 일어나거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낮시간에 최대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운동이든 공부든 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뇌세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학설이거든요.

이상화 선수: 맞아요.

Q. 다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데 다시 도전한다면 지금부터 뭘 하고 싶은지요?

이승훈 선수: 일단 지금 당장은 아직 제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고 싶어요.

원장: 그때 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겠네요.

이승훈 선수: 아직 어리고 운동 그만두기에는 너무 이르고 하니까 다음 올림픽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지 아니면 못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이상화 선수: 저는 일단 4년 뒤 올림픽보다 앞으로 있을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제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없고 은메달 밖에 없어요.

Q. 계속 스피드스케이트를 했어요?

이상화 선수: 저는 스피드만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쇼트트랙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스피드로 바꿨죠.

모태범 선수: 저도 뭐 말했듯이 올림픽에서 1등이라는 맛을 봤잖아요. 너무 짜릿해요. 너무 짜릿해서 그만두면 후회할 것 같아요. 다음 올림픽 보단 그냥 매년 대회마다 제 자신한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목표한 거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올림픽 메달 딴 이후로 세상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졌잖아요. 좋은 거 많을 텐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어려운 것이 뭐예요?

이승훈 선수: 돌아다니면 사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분 많잖아요. 근데 어쩔수 없이 못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마음이 아파요. 딴 거 저는 다 좋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상화 선수: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사진찍자고 그러면 한번에 끝나면 되는데 우르르 다 몰려 드니까

싫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사인같은 경우도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갖고 와서는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힘들죠.

원장: 나도 그런게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스타의 괴로움일거예요.

이상화 선수: 이 정도는 즐기고 있어요.

이승훈 선수: 그거말고는 너무 좋죠. 다 알아봐 주시고...

모태범 선수: 본래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모두 다함께 : 청소년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일본의 핵심역량기반 교육

김기현(선임연구위원)

일본은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기반 교육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뉴질랜드에 이어서 방문한 두 번째 국가였다. 입시지옥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곳.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이라는 학술용어가 쓰였을 만큼 사교육열풍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곳이 일본이다. 이러한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문한 이유는 유사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역량기반 교육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적 모델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 때문이었다.

사실, 일본에서 꽤 오래전에 역량 개념이 교육에 도입되었다. 일본에서 「학습기본요령(學習基本要領)」의 개정으로 ‘생활력(生活力)’이라 하는 교육목표가 등장한 것은 1998년이다. 여기에서 ‘생활력’이란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사고하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율적인 통제능력, 타인과의 협조, 타인에 대한 배려, 감동할 줄 아는 풍부한 인간성, 건강한 신체와 체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OECD에서 2003년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의 결과로 제시한 핵심역량의 개념과 매우 흡사하다. 일본 교육과정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도호쿠대(東北大)의 미즈하라(水原克敏) 교수는 연구진과 함께 참여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일본의 ‘생활력’이 OECD가 제안한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를 “앞서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자신감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수긍이 갔다. 그 이유는 2006년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일본에서 제기된 학력저하 논쟁과 ‘여유로운 교육(ゆとり教育)관’에 대한 비판이

2008년 교육과정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4월부터 적용된 교육과정에서 생활력이라는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감축되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미즈하라 교수는 일본 언론에서 2008 교육과정 개정을 종합적인 학습 시간의 감소를 근거로 여유로운 교육에서 학력 중시 교육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학습과 각 교과목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과목의 활용 능력, 특히 언어 능력의 육성을 모든 교과목에 걸쳐서 요청하고 있으므로 생활력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은 어떨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방문한 곳은 센다이(仙台)시에 위치한 쇼케이카구인(尚絅學院) 중학교였다. 연구진이 이 학교에 방문하여 관찰한 수업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형 학습으로 과학교목과 우리나라의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에 해당하는 교외학습 시간이었다.

먼저 과학수업은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세균을 알아보는 내용이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은 조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큰 책상이 4개 배치되어 있었으며, 한 책상 당 7-8명이 앉아있었다. 탐구형 학습 담당 선생님은 수업진행을 맡았고 과학 담당 선생님은 뒤편에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이나 수업에 몰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이 수업에서 특징적인 것은 국립대인 도호쿠대 의대교수가 직접 참여하여 강의와 세균 체험을 지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 파트너십 프로젝트(Science Partnership Project)」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담당 선생님은 이러한 대학연계교육이 매우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수업진행은 조별로 학생들이 먼저 세균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이어서 교수가 세균에 관한 간략한 강의를 진행한 후 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세균을 직접 채취하는 체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어졌다.

중학교 1학년 탐구형 학습의 두 번째 수업은 교외학습시간으로 우리가 방문한 시기에 수업은 각 조별로 진행한 탐구활동을 중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중간발표는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2, 3학년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1학년 학생들의 발표 내용은 지역사회 문제점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파악해 조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내용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발표를 하였다. 2학년 학생들은 아오모리 현(靑森縣)과 아키타 현(秋田縣)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탐방 내용을, 3학년 학생들은 홋카이도(北海道) 지역 탐방을 통해 아시아 문화와 역사, 인권문제, 홋카이도 개척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수업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학년별 발표 후 후배나 선배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다. 동시에 모든 수업의 진행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는데 선생님들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질의응답시간에 다른 학생들처럼 손을 들어 질문을 하거나 단순히 참관을 하였다.

4시간가량 진행된 탐구형 학습을 관찰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일본의 교육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을 일부 해소해주었다. 물론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탐구형 학습 담당 선생님의 지적처럼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의 체질 개선이나 모든 교과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을 할애하는 접근 방식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일본 지방도시의 평범한 학교에서 관찰한 대학연계수업이나 프로젝트수업(PBL)은 뉴질랜드의 교과통합적 접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좋은 참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자는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에 있어 대학은 물론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등 지역사회 자원의 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발간물 소개

>>> NYPI 발간물

〈2009 고유과제 정책제안 보고서〉

이 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9년도에 발간한 총 22개 고유과제의 연구내용,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제안에 초점을 둔 정책보고서이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들은 글로벌역량, 진로·학습, 의식·활동·문화, 건강·안전, 취약·위기환경, 인권·장애·비행, 정책·지역사회의 7개 주제로 분류돼 본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언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돼 있다.



〈2009 한국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김기현 · 장근영

이 기초분석보고서는 본원이 2009년도에 수행했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1〉의 조사 데이터 소개와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별, 교급별, 권역별, 가족구성별, 경제적 수준별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조사내용을 알 수 있다.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생존권·보호권〉

모상현·김희진

이 기초분석보고서는 본원이 2009년도에 수행했던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의 조사 데이터 소개와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별, 교급별, 권역별, 가족구성별, 경제적 수준별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조사내용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김기현·맹영임·장근영 외

이 연구보고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기 핵심역량의 영역체계와 예비조사를 거친 진단도구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표체계와 측정도구를 확정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의 전국 초·중·고생 9,1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핵심역량 강화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함평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걸쳐 진단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중단분석을 위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자 314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가지 핵심역량 영역에 관한 진단조사 외에 이 연구는 청소년 생애핵심역량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고력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인을 정의하고, 이를 비판적 사고력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 자료실 신착 도서

| 단행본

No. 1 서 명 : Self-Therapy : bA Step-By-Step Guide to Creating Inner Wholeness Using IFS, A New, Cutting-Edge Therapy

저 자 : Jay Earley

출판사 : Millcity

출판년 : 2009

No. 2 서 명 : Short-Term Play Therapy for Children

저 자 : Heidi Gerard Kaduson

출판사 : Guilford

출판년 : 2009

No. 3 서 명 : Early Adulthood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Series

저 자 : Frank F. Furstenberg

출판사 : Sage Publications

출판년 : 2002

No. 4 서 명 :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 Volume 10

저 자 : Paul B.Baltes

출판사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출판년 : 1990

No. 5 서 명 :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저 자 : Stephen W.Raudenbush

출판사 : SAGE Publications

출판년 : 2002

No. 6 서 명 : 청소년 성범죄자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사업 : 시행 4차년도 보고서

저 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

출판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

출판년 : 2006

No. 6 서 명 : (2008년 제1차)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저 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사 : 보건복지가족부
출판년 : 2008

No. 7 서 명 :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저 자 : 지역아동정부센터
출판사 : 지역아동정부센터
출판년 : 2009

No. 8 서 명 : 인터넷 중독의 행동 표현양상, 중독 유형 및 공존 질환에 따른 생물학적 치료 및 상담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
저 자 : 가톨릭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
출판사 : 가톨릭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
출판년 : 2009

No. 9 서 명 :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저 자 : 보건복지가족부
출판사 : 세이브더칠드런
출판년 : 2010

No. 10 서 명 :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 관련 법령집
저 자 : 보건복지가족부
출판사 : 보건복지가족부
출판년 : 2010

No. 11 서 명 : 2010년도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저 자 : 보건복지가족부
출판사 : 보건복지가족부
출판년 : 2010

No. 12 서 명 :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저 자 : KD재정성과평가실
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
출판년 : 2009

No. 13 서 명 : 아동관련법령집
 저 자 :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출판사 :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출판년 : 2010

No. 14 서 명 : 다문화이해의 다섯빛깔 : 아시아 이해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저 자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
 출판사 : 한울
 출판년 : 2009

No. 15 서 명 : 지구시민사회 : 개념과 현실
 저 자 : 안하이여, 헬무트
 출판사 : 아르케
 출판년 : 2004

오늘날 사회과학 전체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는 '지구시민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해설한 교재. 이 책은 논쟁적 개념인 '지구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그 실체를 가늠하기 위해 연구자들과 운동가들이 함께 기획, 토론, 자료수집, 집필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지구시민사회 논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큰 글들을 선정하여 실었으며, 지구화 및 시민사회 논쟁에서 한국 학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론위주의 논쟁, 공론적 분석 등에 대한 비판적 응답으로써 실증적 성격의 글을 골라 번역, 기술하였다.

No. 16 서 명 : 지구시민권과 지구 거버넌스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Governance
 저 자 : 박재창
 출판사 : 오름
 출판년 : 2009

지구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나 영향력의 도달범위도 매우 다원적이고 또 다면적이다. 정치적으로는 국제기구나 국제 NGO 또는 민족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을 초월하는 지구 거버넌스 체제의 등장을 불러왔으며, 문화적으로는 민족국가 간의 개별적 정체성을 뛰어넘는 접촉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지구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가치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에 있다.

No. 17 서 명 : 역량기반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성과 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
 저 자 : 왕윤찬
 출판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출판년 : 2009

No. 18 서 명 : 핀란드 교육혁명: 왜 핀란드 교육인가?

저 자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총서기획팀

출판사 : 살림터

출판년 : 2010

경쟁하는 교육 한국, 협력하는 교육 핀란드! 북유럽에서 찾은 우리 교육의 미래 핀란드 탐방보고서 『핀란드 교육혁명』.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는 핀란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교육의 희망을 찾기 위해 직접 핀란드를 찾아서 보고 들은 정보를 정리해 소개한다. 핀란드의 아이들의 교육환경부터, 학교, 사회문화적 조건, 교육정책과 교육행정까지 모두 살펴서, 핀란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교육을 위한 풍부한 상상력을 펼쳐내는 탐방보고서가 펼쳐진다.

No. 19 서 명 : 핀란드 교실혁명

저 자 : 후쿠타 세이지

출판사 : 비아북

출판년 : 2009

저자는 수십여 차례 핀란드를 방문하고, 핀란드 교육 성공의 비결을 연구한 일본의 핀란드 교육전문가다. 후쿠타 교수는 이번 책에서 핀란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인 교실을 200여 컷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전달한다. 우리에게 교육이란 너무나 민감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거대 담론이다. 그래서 원작자나 해설자는 먼저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공교육의 현장, 교실에 렌즈를 들이대고 있다. 교실에서 이뤄지는 작은 변화를 모델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 개혁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No. 20 서 명 : Children's participation

저 자 : Roger A. Hart

출판사 : Earthscan Publications

출판년 : 1997

No. 21 서 명 : Developmental Assets : A Synthesis of the Scientific Research on Adolescent Development

저 자 : Peter C. Scales

출판사 : Independent Pub Group

출판년 : 2004

No. 22 서 명 : 초등학생 가출예방 프로그램 개발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출판사 : 한국청소년상담원

출판년 : 2009

No. 23 서 명 : 자살위기청소년 상담개입프로그램 개발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출판사 : 한국청소년상담원
 출판년 : 2009

No. 24 서 명 : 가출청소년을 위한 단기쉼터 초기사정매뉴얼 개발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출판사 : 한국청소년상담원
 출판년 : 2009

No. 25 서 명 :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출판사 : 한국청소년상담원
 출판년 : 2009

No. 26 서 명 : 저소득 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출판사 : 한국청소년상담원
 출판년 : 2009

No. 27 서 명 : 아동발달의 이해
 저 자 : 정옥분
 출판사 : 학지사
 출판년 : 2006

No. 28 서 명 : 생애발달II : 청소년기에서 후기 성인기까지
 저 자 : LAURA E BERK
 출판사 : 시그마프레스
 출판년 : 2009

이 책은 발달의 전 생애 관점 그리고 생물학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한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종 집단과 문화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인간이 발달해 가는 넓은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책은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배운 것을 적용하고, 자신의 삶과 그 정보를 관련짓도록 도와준다.

| 연간물

No. 1 서명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출판사 : Springer

출판년 : v.39, n.4(2010/04)

A Multiple Mediation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Non-Suicidal Self-Injury/ Adolescents' Suicidal Thinking and Reluctance to Consult General Medical Practitioners/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tyles on African-American and Caucasian Children's Suicidal Behaviors/ Suicidal Ideation and Distress Among Immigrant Adolescents/ Gender, General Strain Theory, Negative Emotions, and Disordered Eating/ Depression as a Moderator of Sociocultural Influences on Eating Disorder Symptoms on Adolescent Females and Males/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and Adolescents' Internalizing Behaviors Among African American and Asian American Adolescents/ Acculturation and Sexual Risk Behaviors Among Latina Adolescents Transitioning to Young Adulthood

No. 2 서명 :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저자 : Sage Publications

출판년 : v.36, n.4 (2010/04)

Academic Performance in African American Undergraduates: Effects of Cultural Mistrust, Educational Value, and Achievement Motivation/ Asian Indian College Student's Science and Math Preferences: Influences of Cultural Contexts/ Work Hope and Influences of the Career Development Among Ukrainia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Career Expectations and Outcomes of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10 and 20 Years Post-High School Graduation

No. 3 서명 : Exceptional Children

출판사 :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출판년 : v.76, n.3(2010/3)

Special Education Teacher Quality and Preparation: Exposing Foundations, Constructing a New Model/ The Political Dilemmas of Formative Assessment/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A Promise to Children and Families for Their Future/ Justifying and Explaining Disproportionality, 1968-2008: A Critique of Underlying Views of Culture/ Evolving Interpretations of Educational Equity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Blurring" of Special Education in a New Continuum of General Education Placements and Services

No. 4 서 명 : 청소년학연구

출판사 : 한국청소년학회

출판년 : 제17권 제3호(201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특성에 따른 진로미결정 및 생활만족도와와의 차이/ 대인관계 집단치료와 인지행동 집단치료가 청소년 우울 및 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 이주초기 재미한인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있어 대처 및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방과후학교의 실태 및 발전 방안-중학생을 중심으로/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기성장을 위한 분석적 미술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국 초·중·고학생의 위험행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o. 5 서 명 :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출판사 : Sagepub

출판년 : VOLUME 30, NUMBER 2, APRIL 2010

Global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Reported Dieting in Early Adolescence/
Interplay of Network Position and Peer Substance Use in Early Adolescent Cigarette, Alcohol, and Marijuana Use/ Why try? Achievement Motivation and Perceived Academic Climate Among Latino Youth/ Youth Assets and Delayed Coitarche Across Developmental Age Groups/ Epistemic Beliefs and Achivement Motivation in Early Adolescence

No. 6 서 명 :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출판사 : WILEY-BLACKWELL

출판년 : Volume 20, Number 1, 2010

Understanding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Developmental Outcomes: Insights From the Family Stress Model/ School Connectedness Buffers the Effects of Negative Family Relations and Poor Effortful Control on Early Adolescent Conduct Problems/ Longitudinal Changes in Religiosity Among Emerging Adult College Students/ A Reinterpretation of Parental Monitoring in Longitudinal Perspective/ Mexican Americam Parents' Involvement in Adolescents's Peer Relationships: Exploring the Role of Culture and Adolescents' Peer Experiences

No. 7 서 명 : CHILD & YOUTH SERVICES

출판사 : Routledge

출판년 : Volume 31, Numbers 1/2, January-June 2009



NYPI NEWS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전문가 토론회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3월 17일(수) 코리아나 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국정성과에 대한 평가와 의견수렴을 위해 ‘친서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성과와 과제’란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진구 수석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를, 김지연 연구위원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를, 양계민 연구위원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광운대 이복희 교수, 한서대 방은령 교수, 동아대 오성배 교수, 세계일보 신진호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MOU 체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3월 9일(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고선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가족돌봄지원, 가족상담사업, 가족교육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조화될 수 있도록 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월 26일(화) 교총회관 2층 단재홀에서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세대 교육학과 강상진 교수는 '패널자료분석을 위한 다층모형' 특강을 실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년~2016년)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아동·청소년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이번 특강을 준비하게 됐다.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정책 시범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월 19일(화) 이명숙 원장을 비롯, 권택기 의원(한나라당·광진구 갑), 정송학 광진구청장, 박용관 광진구교총회장(광장중 교사), 연유희 대원여고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정책 시범연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명숙 원장은 교육봉사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현직 교사 및 예비교사를 활용하는 전문 자원봉사 인력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자원봉사 인력, 특히 전·현직 교사와 교대·사대생을 포함한 예비교사인력 및 고등학교 청소년의 참여를 활용한 실질적 돌봄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취약위기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친서민적 아동정책의 실천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온전한 보살핌(total care)이 필요한 취약 아동·청소년의 수가 100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고 복지서비스기관의 전담인력만으로는 취약계층 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부합한 실질적인 맞춤형 토달 케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말 이웃돕기 성금 전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베들레헴 어린이집과 서울시장애인부모회(사진)에 각각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편집자 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후 역량기반 학습체계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생애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핵심역량의 기본 개념 및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진단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꾸몄습니다. 아울러, 지난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모태범, 이승훈, 이상화 선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청소년리포터 코너에 실었습니다. 선수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생각대로, 마음대로



상호 모순된 민주주의 시민의식

-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의식은 높으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선호

“누구나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 92.0%

“한 두 사람이 빨리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게 낫다” 청소년 19.5%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잘 살면 된다” 청소년 18.5%

지역사회공동체 / 봉사 / 자선구호 등 참여 부족

“지난 1년간 지역사회공동체 활동 경험” 청소년 3.8%에 불과

“자선 및 구호봉사 활동 경험” 청소년 8.3%

“봉사동아리 활동 경험” 청소년 17.1%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9년 수행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결과원 (문의처 : 02-2188-8680, kihuns@nyp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82-2-2188-8860/8800 Fax.82-2-2188-8869
www.nypi.re.kr